

진주청소년신문

JINJU ADOLESCENT
NEWSPAPER

FEELTONG

2021년 12월 15일 수요일

복간 제 64호

ifeltong.org

사/단/법/인/청/소/년/문/화/공/동/체/필/통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



표지인물
2021년 필통기자단
대표(김시은-제일여고),
부대표(김수원-진양고)

2022 진주청소년신문 필통 신입기자 정기모집



- *모집기간 : 2022년 1월 7일(화)까지 (서류심사 후 면접일자는 개별통지)
- *모집인원 : 15명내외
- *모집대상 : 진주 관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한함
(휴학생, 퇴학생도 지원 가능함)
- *문의 : 전화 070-8628-1318 / 카카오톡 아이디 feltong1318
- *응시방법 : 필통 홈페이지에 있는 기자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E-mail 로 보내주세요!
(feltong1318@hanmail.net)

2022년 한 해도 진주 아이쿱 생협은
필통과 함께 합니다

진주 icoop 생협

필통을 후원합니다.
필통을 진주의 자랑으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윤리적 소비를 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이달의 인물] 2020 필통기자단 대표, 부대표를 만나다

코로나 2021! 필통기자단을 이끌다 김시은, 김수원 기자

Q.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김시은) 안녕하세요. 2021 필통기자단 대표, 진주제일여자고등학교 2학년 김시은입니다.

A. 김수원) 안녕하세요. 필통 독자 여러분들, 부대표, 진양고등학교 2학년 2반 김수원입니다.

Q. 필통에 지원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A. 김시은) 특별한 계기라... 중학교 때 우연히 필통 신문을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나도 이런 기사 한번 써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바로 신청을 하게 되었죠!

A. 김수원) 필통을 중학교 때 처음 봤었던 기억이 있어요. 언론매체에 관심이 생겨 기자단 활동을 하면 자기계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지원했어요.

Q. 필통 첫인상은 어땠나요?

A. 김시은) 여러 학교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뭔가 무서운 느낌도 있었고 다들 진지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자유로워서 놀랐던 것 같아요.

A. 김수원) 기자단이라고 해서 뭔가 딱 부러진 모습을 상상했는데 사무실에 처음 갔을 때 멋지고 재밌는 선배들이 많아서 지원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ㅎㅎ 그리고 일할 때는 전문가처럼 임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Q. 필통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A. 김시은) 우리가 관심이 없던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활동도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평소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 자주 벌어지죠.

A. 김수원) 필통은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해요. 세월호 유가족분을 만나고 직접 진도에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매력은 다른 학교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죠. 기사 쓰는 활동도 재밌구요.

Q. 필통은 어떤 활동을 하나요?

A. 김시은)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해요. 매주 금요일까지 기사 스크랩, 3분 스피치 등 자신의 글쓰기 능력도 향상 될 수 있고 자신감도 찾을 수 있는 활동이 많아요. 필통 내부 활동도 있지만 외부 활동들도 재밌는 것이 아주 많아요!

Q. 가장 즐거웠던 활동과 힘든 활동은 무엇이었나요?

A. 김시은) 가장 즐거웠던 건 누가 뭐라 해도 MT였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건 개인기사 쓰기도, 매달 새로운 기사거리를 찾는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A. 김수원) 첫 회식, 그 고기의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고기집이 '임대' 표지가 붙었다고 하더라고요.(웃음) 회식 이후에 갔던 노래방도 재밌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활동은 처음 기사 쓸 때였어요. 글은 많이 써왔지만 직접 취재하고 사진 찍어 기사까지 써야 하는지라 꽤 고생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도 읽어주시는 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도 필통기자단은 열심히 취재하고 글 쓰고 있습니다.

Q. 대표(부대표)를 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A. 김시은) 도전이었어요. 반장이나 학교에서의 대표와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아주 특별한 단체에서 가장 적극적인 나를 발견하는 것은 또 다른 설렘인 것 같아요.

A. 김수원) 원래 대표나 부장 같은 거 하는 걸 좋아해요. 진양고 도서부 부장도 맡고 있고요. 정말 더 많은 학생들이 우리 신문을 기다리고 아끼게 만들고 싶었어요. 앞으로 필통의 행보를 주목해주세요 독자 여러분들!

Q. 필통 기자의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김수원) 필통 기자는 하나만 가지면 됩니다. 바로 성실함이요. 기자는 제대로 된 취재로 올바른 기사를 써야 합니다. 기자 한 명 한 명, 모두가 성실하게 공동 작업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겁니다. 성실함은 필통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평생을 좌지우지할 중요한 습관이겠죠.

Q. 최근 활동에 있어 아쉬운 부분?

A. 김시은) 코로나로 필통 신입 기자 지원이 많이 저조해졌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의 영향이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잘 극복해서 예전의 활발한 필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왼쪽이 김수원 부대표, 오른쪽이 김시은 대표>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김시은) 필통 신문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A. 김수원)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독자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04년생 친구들, 05년생 동생들, 03년생 선배들 그리고 선생님들. 필통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파이팅! 여러분들은 절대 지지 않을 거예요! 멋진 내일이 매일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를 알고 계시는 문산중 친구들 진양고 친구들 앞으로의 필통이 궁금하신 기타 등등 인스타그램 맞팔해요(웃음)(feeltong_official) 그리고 진양고 도서부 파이팅!



필통기자단 활동

필통학생기자단은 (사)청소년문화공동체 필통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선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청소년들의 매체라 할 수 있는 '진주청소년신문 필통'을 만드는 핵심적인 기자활동을 한다. 또한 청소년 팟캐스트 방송인 '필통 팟캐스트, 유튜브'도 직접 제작 방송하며 교육청등과 함께 주최하는 '청소년 멘토스쿨'등의 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지역의 다양한 청소년관련 활동에도 함께하고 있다.

필통기자는 진주지역 고등학교 1,2학년으로 구성된다. 향후 중학생기자단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매년 방학때면 공식적인 학생기자모임을 진행하고 1차 서류전형, 2차 개별면접을 거쳐 10~12명 정도의 신입기자를 선발한다. 신입기자들과 활동중간기자들은 '기자학교' '기자단 수련회' 프로그램을 함께하고 매년 25~30명의 학생기자들이 활동하게 된다. 물론 자퇴등으로 학교밖 청소년들에게도 필통기자단의 문은 열려 있다.

필통학생기자단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겨울방학때면 '기자단 수련회'에서 학생기자단을 이끌어 갈 기자대표와 부대표를 직접선거로 선출하게 된다. 선거에는 신입기자, 현역기자뿐 아니라 수련회에 참석한 필통 출신의 선배들까지 모두 참여하게 되고 후보들의 각오와 다짐을 듣고 한 해 필통을 이끌어 갈 자신들의 리더를 뽑게 된다.



사진으로 보는 필통기자단 활동



<필통은 매년 겨울 방학때 기자단 정규모집을, 여름방학때 추가모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필통기자는 서류전형을 통과 후 최종 면접을 거칩니다>



<필통기자가 되면 필통의 전용 기자수첩을 지급 받습니다>



<2021년 필통기자단 선거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으로>



<필통 유튜브방송, 직접 스토리보드 만들고 녹음합니다>



<필통기자단은 우리사회의 청소년관련 이슈에도 참여해 목소리를 내고 청소년을 대표하는 역할도 합니다>



<겨울과 여름방학이면 필통기자단은 1박2일 기자단 수련회를 떠납니다>



<매년 한해를 정리하는 필통기자단 시상식&송년회가 열립니다>



<필통기자단은 진주청소년을 대표해 지역의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에 출연합니다>



<기자들은 매주 편집회의의 스크랩 발표, 3분스피치, 25분 강의 토론, 기자교육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매년 겨울방학 MT때면 필통출입식이 열립니다. 늘 울음바다가 되는 새벽까지 이어지는 아주 특별한 졸업식입니다>

[필통편집국]

[특집-대한N진주] 숫자로 본 대학의 현주소

2021년 대입 수능 그리고 사라지는 대학들

■ 2021학년도 대입 응시생과 대학 정원 비교

2021년 대학 모집인원은 4년제와 전문대학 등을 포함한 550,659명, 대입 응시생수 533,941명이다. 산술적으로 수험생 수 16,718명이 대입정원에 부족한 수치다.

수능 응시자 수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2020학년도 수능 응시자는 548,734명으로 전년 대비 46,190명이 줄었다. 2020년생 밀레니엄 베이비가 대학에 입학하던 2019학년도에 수능 응시자가 소폭 증가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수능 응시자 수가 줄어서 앞으로는 대학이 입학정원을 채우기 어려운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입

학정원이 지속적으로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입학 정원의 조정은 대학 자율에 맡길 예정이다. 수험생 수가 줄어들며 따라 대학들도 입학정원을 채우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지만 상위권 대학을 제외하고는 정원을 채울 묘수가 없어서 항간에는 '벗꽃 피는 순서로 대학이 없어진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021년 대학 모집정원]

구분	수시모집	정시모집	합계	고3 학생수
2021학년도	267,374명(77.0%)	80,073명(23.0%)	347,447명	457,674명
2020학년도	268,776명(77.3%)	79,090명(22.7%)	347,866명	510,241명
2019학년도	265,862명(76.2%)	82,972명(23.8%)	348,834명	570,661명

대교협이 발표한 198개 대학의 총 모집인원은 34만7천명이다. 전국에는 198개의 4년제 대학이 있다. 경상대 등 국립대학교 28개, 서울대와 인천대 국립법원대학 2개, 전주교육대 등 국립교육대학 10개, 경남대 등 사립대학 151개, 과학기술부 부설 특수대학 4개가 있다. (*사립대학원대학 43개, 사립사이버대학 21개) 전문대학은 138개교다.



■ 대학 등록금, 얼마나 될까?

구분	등록금 최고 TOP10 (2019)			등록금 최저 TOP10 (2019)		
	대학명	유형	금액	대학명	유형	금액
1	연세대학교	사립	9,154	중앙승가대학교	사립	1,760
2	명지대학교	사립	9,118	영산선학대학교	사립	2,000
3	카톨릭대학교(2)	사립	9,115	광주과학기술원	특별법인	2,060
4	신한대학교	사립	9,079	서울시립대학교	공립	2,390
5	울지대학교	사립	9,078	한국교원대학교	국립	3,183
6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사립	8,995	한국전문문화대학교	특별국립	3,268
7	중앙대학교(2)	사립	8,658	목포해양대학교	국립	3,409
8	이화여자대학교	사립	8,653	한국해양대학교	국립	3,738
9	인제대학교(2)	사립	8,556	안동대학교	국립	3,749
10	신한대학교(2)	사립	8,543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국립	3,770

대한민국 대학 진학률 81.6%. 대한민국 사립대 등록금 연 평균 742만원, 대한민국 국립대 등록금 연 평균 419만원이다. 의학계열 평균 등록금 1000만원 이상, 예체능 779만원, 공학계열 714만원, 자연과학계열 679만원, 인문사회계열 596만원.

대학 등록금이 가장 비싼 대학은? 연세대학교 915만원, 국립대 중 등록금이 가장 비싼 대학은? 서울대학교 601만원, 등록금이 가장 저렴한 대학은? 중앙승가대학교 176만원.

■ 자녀 1인 교육비용은 얼마나 될까?

대학생은 등록금에다 주거비, 식비, 교통비, 용돈, 교재비 등 최소한의 생활비를 합하면 연 2,000만원 정도의 교육비가 추가로 들어간다. 한국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기까지는 8,51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조사가 있다. 22년간 자녀 1인당 대학 졸업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대략 3억 정도가 들어간다.



■ 가장 넓은 면적의 캠퍼스는?



전국에서 가장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대학교는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강원대학교로 총 면적이 3,175만 3235㎡에 이른다. 2위는 전라북도 전주시에 소재한 전북대학교로 총 면적은 2,247만 4804㎡다. 광주광역시에는 전남대학교가 3위이며 그 면적은 1,058만 6937㎡으로 2위의 절반 크기다.

4위와 5위는 각각 경북대학교와 경상대학교가 차지했다. 경북대학교는 743만 2876㎡, 경상대학교는 565만 3861㎡의 규모를 자랑한다. 그 다음으로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대학교가 부지 면적 408만 5558㎡로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사립대학교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다. 7위는 369만 820㎡의 면적을 가진 건국대학교, 서울 소재 대학교 중에서는 가장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다. 8위와 9위는 호서대학교와 부산대학교로 각각 353만 4858㎡, 350만 4048㎡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연세대학교가 321만 1222㎡로 그 뒤를 따르는데 전국 랭킹은 10위다.

2021 수능 결과 분석 N수생 국어 영향력↑... 최저학력기준이 관건

코로나19 상황에서 힘겨웠던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끝나고 성적표가 나왔다. 예년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지만 수능은 이미 치렀고, 결과 또한 확인했다면 이제 수험생들은 대학 입학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대입지원 전략에 앞서 필요한 것은 이번 수능에 대한 분석이다. 내 성적 위치가 어느 정도이고, 어떤 대학에 지원했을 때 유리할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수능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해 보면 크게 'N수생 강세', '국어 변별력 상승',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 등을 세가지 키워드로 꼽을 수 있다.

특징 1. 지난해에 이어 졸업생 영향력 높을 것

전년도 수능 응시 인원과 비교해보면 올해는 2020학년도 대비 6만3703명이 감소한 42만 1034명이 수능에 응시했다. 수능 응시자 중 재학생은 전년대비 5만2649명이 감소했으며, 졸업생은 1만1054명이 감소했으나 전체 수능 응시자 중 졸업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1.6%p 높아지면서 올해 정시에서 졸업생의 영향력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징 2. 수학 가형, 과탐 응시 비율 증가

올해 수험생 수가 크게 줄면서 사회탐구, 과학탐구 응시자가 모두 감소했으나, 수학 가형, 과탐 응시 비율은 다소 증가했다. 의학계열 등 자연계 선발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자연계열 모집단위 지원 시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징 3. 국어 영역 만점 및 1·2등급 인원 감소, 상위권 변별의 key

올해 국어 영역 만점자는 151명(0.04%)으로 지난 해 777명(0.16%)에 비해 감소했다. 1, 2등급 인원은 전년도 수능에 비해 1만1032명이 감소하면서 국어 영역의 상위권 변별력이 낮았음을 알 수 있다. 전년도에 비해 만점자와 1, 2등급 비율이 모두 감소한 국어 영역이 상위권을 변별하는데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학 나형은 만점자 수는 증가했지만 1등급은 1806명, 2등급은 3503명, 3등급은 3163명이 줄면서 3등급까지 전년 대비 8472명이 감소해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뿐 아니라 정시에서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징 4.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 국어가 변수

올해 영어 영역 1등급 인원이 크게 증가했으나, 국어 영역 및 수학 나형에서 1, 2등급 인원이 감소하면서,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상위권 대학에 지원한 수험생들의 경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모집 인원의 변화는 경쟁률 및 합격선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1월 5일 이후 발표되는 대학별, 학과별 수시 1월 인원을 확인해 최종 정시 모집 인원을 기준으로 한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특징 5. 영어 1등급 비율 12.66%로 절대 평가 도입 이후로 가장 높아

올해 수능에서 영어 영역 응시자의 12.66%가 1등급을 받으면서 절대 평가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만 7257명 증가한 수치이다. 영어 영역의 1등급 인원 증가에 따라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은 어느 정도 만회될 것으로 보이며, 정시에서는 상대적으로 국어 영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알라뷰 봉사] 헌혈의 집 봉사를 가다

헌혈도 하고 사은품도 받고 거기다 봉사시간까지 받는 일석삼조

헌혈이란, 자신의 혈액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행위를 뜻한다. 헌혈로 공급된 혈액 성분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 제공되거나, 혈액을 이용한 의약품을 만드는 데 쓰인다. 혈액은 아직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거나, 대체할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진주 헌혈의 집은 어디?



진주에서 상시적으로 헌혈을 할 수 있는 곳은 2곳입니다.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 헌혈의 집 진주센터는 진주시 진양호로 526 명원빌딩 8층에 152.99㎡ 규모로 채혈침대 7대와 혈장 성분채혈기 5대, 혈소판 성분채혈기 1대, 채혈혼합기 7대 등 현대화된 장비를 갖췄다.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센터(055-745-2611)로 하면 된다.

헌혈 자격 조건

나이	전혈헌혈 : 만 16~69세 혈장성분헌혈 : 만 17~69세 혈소판성분헌혈, 혈소판혈장성분헌혈 : 만 17~59세
체중	남자 50kg 이상 / 여자 45kg 이상
약물	간선 치료제 복용 후 3년 경과(일부는 영구 헌혈금지)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복용 후 1개월 또는 6개월 경과 탈모증 치료제 복용 후 1개월 경과 여드름 치료제 복용 후 1개월 경과 기타 헌혈금지약물 복용 후 일정기간 경과
건강 진단	혈압(mmHg) : 수축기 90~179, 이완기 100 미만 체온(℃) : 37.5℃ 이하 맥박(회/분) : 50~100
헌혈 간격	전혈헌혈 : 2개월 경과 혈장성분헌혈, 혈소판성분헌혈, 혈소판혈장성분헌혈 : 14일 경과

기본적인 헌혈 자격 조건은 위와 같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만 한정한다. 또한 한국어로 의사소통 또는 통역이 가능해야 하며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증, 한국운전면허증, 주한미군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를 참고 하길 바란다.



필통기자가 직접 헌혈봉사를 진행

1. 전자문진검사

헌혈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왼쪽에 전자문진검사실이 있다. 여기서 자신이 헌혈하기에 적합한지 1차 검사를 한다. 부적합하다 싶으면 바로 돌아 나가자. 검사를 끝내면 번호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린다.



2. 상담 과정

전자문진을 끝내고 다시 간호사분과 상담을 한다. 헌혈하기 적합한지 재확인 하는 것이다. 이때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인적 사항을 물어보고 주의사항을 알려준다. 헌혈이 너무 중요한 것이다 보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담이 끝나면 헌혈을 할 준비를 한다.



3. 헌혈 과정

모든 자격 조건을 충족한 경우, 헌혈이 진행된다. 헌혈의 종류에는 크게 전혈 헌혈과, 성분 헌혈로 나뉜다. 전혈 헌혈은 혈액의 모든 성분(적혈구, 백혈구, 혈장, 혈소판)을 채혈하는 것으로 320mL, 400mL 두 종류가 있다. 이때 400mL 전혈 헌혈은 남녀 모두 50kg 이상만 가능하다. 시간은 약 10분~15분 정도 소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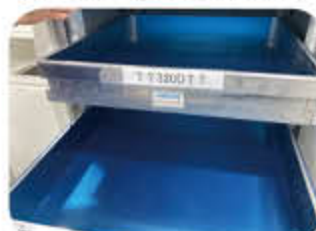
성분 헌혈에는 혈소판 성분헌혈(250mL 정도), 혈장 성분헌혈(500mL 정도), 혈소판 혈장 성분헌혈(혈소판 250mL 정도, 혈장 300mL 정도)이 있다. 혈장은 약 30~40분, 혈소판과 혈소판 혈장은 약 1시간~1시간30분 정도가 소요된다. 침대에 누워서 팔을 걷고 간호사가 혈관을 찾아 바늘을 꽂고 바로 피를 뽑기 시작한다. 헌혈이 끝난 뒤엔 보람감과 뿌듯함을 느끼면서 맛있는 초코파이와 이온음료를 먹으면 된다.

4. 휴식 후 헌혈증 받기

헌혈 후 헌혈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이 준비되어 있으며, 음료와 간식이 제공된다. 헌혈증서는 헌혈 현장에서 즉시 발급되며, 재발급이 불가능하다. 헌혈 후에는 15분 이상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채혈한 혈액량을 보충하기 위해 평소보다 3~4컵의 물을 더 섭취하는 것이 좋다. 수분 손실이 많은 찜질방, 사우나 등은 헌혈 당일 음주나 흡연은 피해야 한다. 특히 헌혈 직후 1시간 이내의 흡연은 헌기증이나 구토를 유발할 수 있다.



〈코로나로 텅 빈 헌혈보관고〉



채혈한 혈액은 별도의 과정을 거쳐 따로 냉장 보관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헌혈 지원자가 줄어들어 텅텅 비어버린 헌혈 보관고)

2020년도 헌혈자 기념품 목록이다.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필통편집국]

진주 헌혈의 집 Q&A

Q. 헌혈하면 빈혈이 생긴다?

A. 결과를 먼저 말하면 헌혈을 한다고 빈혈이 생기지 않습니다. 헌혈을 통해 몸 밖으로 나가는 혈액량은 최대 400mL 정도입니다. 이는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혈액량의 7~10% 정도입니다. 우리 몸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전체 혈액량의 15%를 여유분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보다 적은 양이 빠져나가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헌혈은 우리 몸의 예비 혈액을 뽑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헌혈 이후 충분한 휴식과 영양섭취를 하면 일상생활에도 전혀 지장이 없고 1~2개월 후에 예비혈액 또한 되찾는다고 합니다. 단, 처음부터 빈혈이 있는 사람은 헌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헌혈하기 전 적혈구의 헤모글로빈 수

치를 측정해 빈혈 여부를 판단 합니다.

Q. 헌혈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A. 간혹 헌혈을 하면 빠져나가는 혈액량만큼 체중이 줄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혈액량이 줄면서 일시적으로는 체중이 줄어들지만, 다시 혈액이 생성돼 체중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우리 몸에는 혈액을 만들어내는 '골수'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백혈구·적혈구 등을 생성하여 늦어도 2주 안에 새로운 피가 만들어집니다.

Q. 헌혈증이 있으면 수혈을 공짜로 받을 수 있다?

A.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오해 가운데 하나가 헌혈증이 있으면 수혈 비용 전체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

니다. 헌혈증이 있으면 수술이나 응급 상황에서 환자에게 수혈할 때, 헌혈증의 개수만큼 혈액 팩의 비용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혈액 팩의 비용에만 적용되며, 수혈에 필요한 검사나 재료대, 시술 비용 등은 따로 지불해야 합니다.

Q. 헌혈을 할 학생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A.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꼭 말해주셔야 해요. 보통 청소년분들이 많이 복용하시는 여드름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복용 후 한 달이 지나야만 헌혈이 가능합니다.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 현상이 있을 때는 헌혈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꼭 식사를 하신 후에 헌혈을 하시러 오시면 좋습니다.

(인터뷰 - 박정숙과장님)

헌혈도 봉사활동이다! 역차별 논란도...

우리나라 헌혈 인구가 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헌혈은 혈액이 필요한 위급한 환자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어요.

그런데 헌혈 한 회당 4시간의 봉사활동이 인정되면서,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 의무봉사 시간을 채우는 수단으로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보건복지부가 혈액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혈을 봉사 시간으로 인정하면서 생긴 현상인데요. 그러다 보니 급하게 봉사활동 시간이 필요한 학생들이 헌혈로 봉사 시간을 채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학생 헌혈자 수는 크게 늘어, 2009년 131만 명(전체 헌혈자의 51%)이었던 학생 헌혈자가 2013년에는 161만 명(전체 헌혈자의 55.2%)으로 많아졌습니다.

헌혈을 하고 온라인에 등록만 하면 1회당 4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이 인정되는데, 고등학생 기준 봉사활동 시간이나 대학 졸업 기준이 1년에 10~20시간이기 때문에 1년에 3~4번만 헌혈하면 다른 봉사 활동은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헌혈이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되는 게 역차별이라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몸 상태로 인해 헌혈을 할 수 없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헌혈은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는 용도가 아닌, 위급한 상황에 놓인 환자를 돕는 진정성 있는 것임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겠습니다.

VMS 사이트를 접속해서 헌혈 봉사시간을 인정 받는 방법

①먼저 VMS 사이트에 가입합니다. 참고로 VMS란 Volunteer Management System의 약자로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사이트입니다.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우측에 위치한 회원가입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 회원가입과, 인증관리요원 회원가입 버튼이 있는데, 자원봉사자 회원가입을 누릅니다.

②회원가입이 완료되면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 접속한 후 헌혈실적조회를 클릭합니다. 꼭 위 정보 제공의 동의합니다 라는 체크박스를 해줍니다.

③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헌혈실적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④연도 선택 후 검색을 합니다. 검색 후 봉사시간 전환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학생들의 시험 중 질문, 과연 공정한가?

시험 중 교사의 말과 행동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험, 학생들에게 시험만큼 중요한 일도 없다. 내신에 포함되는 시험 한 과목 한 과목의 성적은 학생들에게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시험마다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시험이기에 시험을 치르는 과정, 그리고 결과, 관련된 모든 것이 공정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예기다.

그러나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 동안 적잖은 문제들이 종종 발생한다. 그 중 하나가 시험이 실시되는 중에 교사들이 시험문제와 관련된 질문을 받는 것이다. 교사들이 시험을 치기 전 학생들에게 '시험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시험 때면 항상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광경이다. 물론 좋은 의도에서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시험 도중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한 것인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학생들의 질문과 선생님의 답변이 학생들을 위한 것이고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하는 시험시간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긴장감 가득한 시간에 불필요한 질문으로 교실 안 학생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질문으로 시간을 허비하기도 한다. 또한 담당 교사에게 따라, 질문 내용에 따라, 시험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힌트가 되는 답변이 주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는 곧 질문을 하는 반과 그렇지 않은 반 학생들에게 보이지 않는 차별을 만들 수 있는 위험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고서는 '이런 건 대답해 줄 수 없다.'라며 아까운 시험시간을 날리고 학생들의 멘탈까지 날려버려곤 하는 교사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교사는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시험문제의 정답에 가까운 직접적인 힌트까지 제공하여 공정의 선을 넘

겨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가장 최선은 질문을 받을 필요가 없는 시험 문제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문제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면 교사는 어떤 질문이더라도 모든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절한 답변을 해야 한다. 시험은 학생들의 수학적능력을 있는 그대로 평가될 수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선생님의 답변으로 학생들에게 차별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이렇듯 실제로 시험 중간에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교사들을 복도에 배치시켜두는 학교는 대아고, 제일여고, 진안고, 진주고, 사대부고, 진주기공, 진주중앙고, 동명고, 명신고, 선명여고, 경해여고 등으로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시험때면 행해지고 있는 일이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을 주고 똑같은 문제를 준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학생들의 성적, 진로, 미래를 결정한다. 그만큼 공정함이 따라야 한다. 공부를 잘하든 그렇지 못하든 같은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에게는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그 어떤 차별도 개입되어서는 안된다. 교사와 학교는 그것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시험도중 일어나는 학생들의 질문과 교사들의 답변에도 그 공정함이 유지되는지 꼼꼼히 살피고 더 나은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

[필통편집국]

학교에서 칫솔 관리 어떻게 하니?

학교에서 양치질은 일상, 칫솔 살균기 설치해야...

학생들은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중식과 석식, 식사까지 학교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의 이러한 학교생활에서 누구나 반복해서 해야 하는 일이 있다. 바로 양치질이다. 이것은 학생들의 구강 건강뿐 아니라 성장기 신체 건강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식사 후 입안에 남은 음식을 찌꺼기를 제거해 주고 상상만 해도 끔찍한 구취를 없애주기도 하는 양치질, 입 속 세균을 퇴치하는 양치질은 학교생활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일상의 하나다. 그러나 여기서 궁금증이 생긴다. 그것은 바로 칫솔이다. 날마다 양치질에 사용하게 되는 이 칫솔을 학생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또한 건강에 직결되는 이 칫솔 관리에 학교는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있을지 궁금해졌다.

진주의 몇몇 학교는 놀랍게도 칫솔 살균기

를 배치하고 있다. 반마다 칫솔 살균기가 배치되어있고 학생들이 돌려 당번까지 정해져 있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이 학교는 그렇지 못하다. 물론 칫솔 살균기가 있다고 해도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그것 또한 무용지물에 불과하지만 학생들의 건강을 우선 생각하는 학교측의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학교에서 칫솔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물어 보았다. "그냥 컵에 꽂고 사물함에 넣어둔다." "물 컵에 꽂아 책상 위에 올려둔다." 라고 답하는 학생들이 많다. 칫솔 살균기가 배치되어있지 않으면 칫솔 관리는 학생 개인의 책임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모든 학교에 칫솔 살균기가 배치되면 참 좋겠지만 그건 현재로서는 희망사항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칫솔 살균기 없이 칫솔을 어떻게 하면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우선 양치질 후 칫솔에 남아있는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흐르는 물에 칫솔모를 아래 방향으로 향하게 해서 칫솔을 깔끔히 씻어주고 물기를 털어내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는 칫솔 사용 후 습기가 많은 사물함보다는 햇빛이 드는 창가에 두어 건조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칫솔을 쓰고 케이스에 넣어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통풍이 잘되지 않기 때문에 칫솔 꽃이에 넣어두는 게 낫다. 또한 여러 개의 칫솔을 한 곳에 보관해둔다면 세균을 옮길 위험이 있으므로 칫솔 보관은 따로 하는 것이 좋다. 칫솔 살균기의 경우엔 일주일 에 한 번은 베이킹소다로 닦아주면 위생에 문제없이 청결하게 유지 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학교에서 사용하는 칫솔은 하루에 적게는 한번, 많게는 두 번 정도 밖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바꾸지 않는데, 칫솔은 평균 3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이 좋다. 이 외에도 칫솔 살균을 하는 방법으로는 뜨거운



운 물에 소금을 넣고 칫솔을 담궈 2~3분 소독하거나, 구강청결제에 20~30분 담궈 두는 것도 추천할 만하다.

우리의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칫솔, 세균으로부터 안전하게 조금 더 위생적으로 관리해보는 건 어떨까? 무엇보다 학교가 학생들의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학교 내 칫솔 살균기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필통편집국]

5시가 되면 문 닫히는 학교 보건실?

정규수업이 끝나면 보건교사는 퇴근, 그러나 학생은 학교에 그대로...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사가 누구일까? 대입시에 영향을 많이 주는 수학, 영어교사? 학생들의 진로를 책임지는 진로담당교사? 그것도 아니면 맛있는 급식을 책임지는 영양교사? 학생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선생님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지만 정말 빼 놓을 수 없는 분이 있다. 바로 보건교사다. 보건교사는 학생들이 아플 때 약을 챙겨주는 것은 물론, 학교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교내 위생관리까지 담당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단연 학교에서 발생한 응급사고에 대한 대처다

학교는 많은 인원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다.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고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 특히 체육대회와 같은 큰 행사에서는 보건교사가 없어서는 안 된다. 응급사고가 났을 때 보건교사의 주도아래 응급처치를 잘 해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고 위기를 넘긴 사례 또한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보건 교

사가 없다면 어떨까?

진주시내 중고교를 조사해 본 결과 중학교는 9개교, 고등학교는 5개교가 아예 보건교사가 근무하지 않았다. 학생 수가 적은 시 외각 지역 학교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개양중학교, 사대부중, 진주외고, 경남예고, 경남정보고에 보건교사가 없다는 것이 의외였다. 이렇듯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는 다른 과목 교사가 보건 담당교사를 겸임한다. 수업과 보건관련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선 보건교사를 대신하기엔 역부족이다.

또 방과 후, 아자까지 학생들은 밤 늦게 까지 학교에서 생활한다. 각종 안전사고가 밤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는가? 당연히 보건실이 일찍 문을 닫아 불편함을 느낀 학생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아자 쉬는 시간에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다쳤는데 보건실 문이 닫혀서 집 가서 치료 받았어요" "석식을 먹고 속이 안 좋아서 보건실을 갔는데 보건샘이 퇴근하셔서 소화제를 못 받았어요" "방과 후 배가 아파서 쉬는 시간에 보건실에 갔는데 문이 잠겨있어서 당황했던 경험이 있어요." 이렇듯 학생들이 문 닫힌 보건실을 마주한 적지 않은 경험들을 이야기 한다.

보건교사라고 해서 보건실에서 모든 일과를 보내지 않는다. 성교육, 위생교육 등 보건수업을 하기도 하고 시험기간에는 시험 감독으로 보건실을 비운다. 또한 교육이나 연수 등으로 학교를 비우는 일 또한 자주 생긴다. 이럴 때 보건실의 문이 닫혀 있으면 학생들은 곤란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정규수업이 끝나면 보건교사도 퇴근을 한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방과 후 보충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그대로 있다. 또 대부분의 학생들은 야간자율학습



으로 학교에서 밤늦게까지 생활 한다. 당연히 보건교사는 없다.

야간자율학습까지는 아니더라도 방과 후 저녁식사 시간까지라도 학교에는 보건교사가 필요하다. 학생은 그대로 공식적으로 학교에 남아 있는데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위급상황에 대응이 가능한 보건교사가 없다는 것은 분명 생각해 볼 문제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필통편집국]

[특집-19금 톡톡] 교복 입고 콘돔 사러 가다

돌출형 콘돔은 안돼? 포털에서 콘돔은 아직도 청소년 금지 단어

19

이번 19금 톡톡에서는 필통기자단이 직접 콘돔을 구입해 보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성과 관련된 것은 모두 19금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사실 성관계를 19세부터 할 수 있거나 19세 이하가 임신한다고 해서 불법이 되진 않는다. 당연히 피임도구인 콘돔의 구입 또한 19금이 될 수 없다. 과연 청소년들의 콘돔 구입은 현실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직접 구매에 나서는 기자단의 마음은 또 어떨지도 궁금하다.

18% 콘돔 구매해 봤다. 70% 사용법 안다?

언젠가 콘돔을 사용하게 될 남학생들에게 물어 봤다. 콘돔을 사 본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콘돔의 정확한 사용법을 알고 있는지 물었다. (중앙고, 사대부고 남학생 40명) 콘돔을 직접 구매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40명중 7명, 18%였다. 대부분 편의점에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물론 실제 성관계 때문에 콘돔을 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콘돔의 사용법을 아느냐는 질문에 28명, 70% 학생들이 '잘 안다.'고 답해주었는데 아마도 학교 성교육시간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30% 학생들이 여전히 사용법을 모른다는 것도 조금은 의외였다.



필통기자단 콘돔 사러 출동하다

① 구매장소: 시외버스터미널 앞 GS25

Q. 학생들도 콘돔을 구입할 수 있나요?

A. 네. 특수형 콘돔만 아니면 구입이 가능한 걸로 알아요.

점원 분께 처음부터 학생임을 밝혔음에도 콘돔을 사는 것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특수형 콘돔만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친절하게 안내까지 해 주었다. 다만 점원 분께서 특수형 콘돔의 종류까지는 몰라 인터넷 검색을 하는 다소 웃긴 상황이 발생했다.

편의점 앞에서 계속 서성이다가 겨우 들어갔는데 하필 콘돔이 계산대 옆에 비치되어 있어서 구매하기 민망했다. 참고 고르려는데 점원이 나를 이상하게 보며 눈치를 보였고 어떤 변명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콘돔 구입 후 다시 생각해 보니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 것도 아닌데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어이가 없었다. 학생의 콘돔 구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콘돔을 구매할 수 있으면 좋겠다.

김현도 기자(진주고2)



① 구매장소: 반도병원 옆 '추차장 약국'

Q. 학생이라도 구매가 가능한가요?

A. 학생한테는 못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사님은 내가 고등학생임을 모르고 평범하게 대했다. 하지만 약사님은 학생인 것을 알고 '학생한테는 판매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라며 당황했다. 진열된 것이 안보여 약사에게 '콘돔 어디 있냐?'라고 물었다. 그랬더니 뒤에 있는 콘돔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약사 가족 중 한 분이 콘돔에 돌기가

없으면 구매가 가능하다고 말해줘서 구매가 가능했다.

콘돔 가격이 가장 저렴한 것이 7,000원이고 나머지는 10,000원이 넘어갔다. 학생들이 구입하기에는 가격이 꽤 비쌌다. 약사님은 콘돔이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계셨다. 오히려 학생들이 미성년자도 콘돔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판매자가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현실이었다.

배재현 기자(사대부고2)

① 구매장소: GS25 가좌중앙점

취재하기 위한 것이지만 콘돔을 사러 편의점에 들어서는 것 자체가 너무 떨렸다. 원이 말을 건네고 이상하게 쳐다보면 어떻게 할까? 부끄럽고 민망하고 왜 죄짓는 기분이 드는지 묘한 기분이 들었다. 그런데 판매직원 분이 전화를 하고 있어서 거의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가격도 말해주지 않았다. 그냥 당연한 것처럼 과거 계산하듯 자연스럽게 계산 해주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고 대학교 앞이라 그런지 매장에 진열된 콘돔이 많이 팔려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들의 성관계가 불법이 아니듯 분명 콘돔 구매도 불법이 아니다.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콘돔이 더 필수적인 것이다. 실질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 절실히 느꼈다.

조예은 기자(삼현여고2)

① 구매장소: 진주 평안점 GS25

Q. 학생이 콘돔 구매 가능한가요?

A. 가능한 것도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어요.

판매코너 근처에서 진열대를 보고 있으니 알바 점원이 계속 쳐다봤고 몇 번 눈이 마주쳤다. 신경이 쓰이는 눈치였다. 질문을 했을 때도 별로 탐탁치 않아하는 표정이 읽혔다.

취재했지만 편의점 앞에서만 10분 넘게 고민을 했었다. 구매할 때 뭔가 내가 잘못을 저지르는 느낌이 들었고 무엇보다 너무 부끄러웠다. 점원 또한 웅대하는 말투나 표정이 호의적이진 않았다.

온라인상에서 콘돔은 청소년 금지 단어!

청소년들이 콘돔과 같은 피임도구를 약국이나 편의점에 가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구매하기란 쉽지 않다. 만일 구입을 원하는 청소년이 있다면 당연히 온라인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온라인에서 어떤 상품을 구매하고 결제하는 절차가 청소년들로서는 그렇게 간단한 것만은 아니다. 신용카드가 있는 것도, 공인인증서가 있는 것도, 계좌도 있어야 하고 송금도 그리 간단치가 않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포털사이트나 홈쇼핑사이트는 피임도구에 대한 검색뿐 아니라 구입자체를 19금으로 막아 놓고 정보를 차단하고 있다. 실제 '콘돔'은 일반품목임에도 불구하고 19금으로 청소년에게는 실제

로 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그 외의 다른 피임도구 또한 금지되어 있다. 결국 인터넷 온라인상에서는 청소년들이 콘돔을 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청소년에게 돌출형 콘돔 판매가 불법인 이유?

지금 한국에서 청소년이 콘돔을 구매하는 건 합법이다. 다만, 청소년이 콘돔을 구매하기 어려울 뿐이다. 그러나 청소년이 일반 콘돔이나 초박형 콘돔이 아닌 '돌출형'이나 '링형' 같은 특수 콘돔을 구매하는 건 불법이다. 여성가족부가 그렇게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왜 일반콘돔은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있게 해놓고, 특수콘돔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걸까?

2013년 8월 13일 개정된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 결정 고시에서 특수 콘돔은 '남성용 여성 성기 자극 기구류'로 규정돼 있다. '성적 자극 감각에만 탐닉할 수 있어 청소년에게 유해' '여성 성기에 자극을 가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 '성의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이라고 판매 금지 이유를 밝혔다.



다. 가만 생각해 보면 나도 점원도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일이다. 콘돔이 다른 상품을 구매할 때와 달라야 하는지 여러 생각을 하게 했었다.

서이현 기자(진주고2)

① 구매장소: 세븐일레븐 이현점

GS25 진주 이현점

세븐일레븐 이현점에 들어서 콘돔 판매를 물으니 직원은 단호하게 학생은 안 된다고 했다. 매장 안에서 콘돔을 고르고 있었는데 직원이 갑자기 판매대에까지 나와서 찾고 있는 것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기분이 안 좋았다. 찾는 것이 없다고 말해도 계속 우리를 지켜보고 나갈 땀 흘려 물레 주머니에 콘돔을 넣진 않았는지 유심히 지켜보는 듯 했다. 직원은 왜 콘돔은 학생에게 판매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을까?

인근 GS25 이현점으로 갔다. 이번엔 따로 묻지 않고 콘돔 진열대에서 골라 계산대까지 가져갔다. 그러자 점원이 물었다.

Q. 혹시 몇 살이세요?

A. 저 학생인데 혹시 못사나요?

Q. 네, 저 팔면 경찰서 잡혀가요.

학생도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해봤지만 판매가 안 된다는 답변이었다.

콘돔을 산다는 것이 처음에는 어른들의 시선도 걱정되고 조금 부끄러웠다. 그런데 실제로 학생들에게는 판매가 안돼서 놀랐다. 이해가 안 갔지만 한 편으로는 구입하고자 하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었다.

진서영 기자(삼현여고2)

① 구매장소: 이마트24 이현점

GS25 이현점오거리점

이마트24에서 점원은 아무렇지 않게 계산해 주었다. 점원은 알바 대학생처럼 보였는데 학생이 콘돔 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느냐는 질문에도 귀찮아하며 '상관없다' 고만 했다.

GS25 편의점도 아무렇지 않게 초고속으로 계산을 해 주었다. 그런데 학생이라고 밝히자 점원은 대학생임을 알았다고 미성년자에게는 판매할 수 없다고 계산을 취소했다.

부끄러운 마음에 모자와 안경, 마스크로 중무장을 하고 취재에 나섰다. 그래서인지 아무 의심없이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계산을 해 주었다. 진서영 기자처럼 너무 어려 보이거나 교복을 입고 구매한다면 결과가 좀 달랐을 것 같다. 콘돔은 정상적인 피임도구일 뿐인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구매를 못하게 하거나 기분 좋지 않은 시선을 받는 것은 변화가 필요할 듯 했다.

안서진 기자(진주여고2)

① 구매장소: 하대동 선학사거리 세븐일레븐

콘돔을 내려 놓자 과거나 음료수를 사는 것처럼 아무 반응이 없었다. 콘돔을 본 적은 있지만 사는 것은 처음이라 많이 떨렸지만 점원의 예상 밖 시니컬한 응대에 마음이 편안해졌다. 학교를 마치고 바로 가다보니 교복 차림이었음에도 알바생의 태도는 아무렇지 않았다. 오히려 나 스스로 선입견이 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보경 기자(진주중앙고2)

[필통편집국]

치마 가리개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무조건 치마교복을 고수하는 우리 학교의 웃픈 현실

일명 '치마 가리개'라고 하는 가림막이 있는 책상을 본적이 있는가? 여학생들이 학교 생활 중 가장 불편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교복 치마를 꼽을 수 있다. 치마를 입게 되면 활동하는데 불편할 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도 적잖이 신경이 쓰이게 된다. 수업에 집중하다 보면 다리를 꼬거나 한쪽을 올리는 등의 편한 자세를 취할 수도 있는데 앞이 뻥 뚫린 책상에서는 이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여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담요를 찾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학교에서는 교복 바지를 허용해 주기도 하지만 치마교복이 기본 선택이라 추가로 4~5만원의 비용을 들여 바지를 구입해야 하는 형편이다.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다. 그래서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처음부터 '치마 가리개'가 부착된 책상이 제작되기도 한다.

책상 앞 가리개는 치마 때문에 노출을 우려하는 여학생들의 불편도 없애주지만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편이성을 준다. 학생들 스스로 자세가 꼬이거나 흐트러지는 순간들을 의식하지 않고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수업하는 교실의 통일감을 주어 교사들의 교수과정에 집중력을 높여주어 수업효율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진주시 관내 여자고등학교 혹은 남녀 공학인 고등학교 중 이렇게 '치마 가리개'가 설치된 학교는 단 2곳이다. 긍정적인 효과 때문인지 어떤 학교는 학생회장 선거 중 공약으로 책상 '치마 가리개'를 설치하겠다는 후보가 있기도 했다. 이처럼 치마를 입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책상 '치마 가리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이를 반영하는 학교도 생겨나고 있다. 특히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중요한 시험이 있는 날엔 무릎 담요를 덮을 수 없는 학교 규정 때문에 앞이 다 보이는 책상은 학생들 뿐 아니라 교사들도 불편을 호소하곤 한다.



'치마 가리개'의 장점과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학생들의 책상에 대한 만족도가 클 것이라고 예상된다. 하지만 막상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의 반응은 조금 의외였다. "일단 매우 불편하다. 가리개로 인해 다리가 걸리고, 가림막 사이사이로 보일 거 같은 불안감이 있다." "가장 불편한 점은 책상을 앞뒤로 돌릴 수 없어 수행평가나 쪽지 시험 등 작은 시험 때도 책상 서랍을 모두 비워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더 번거롭다." 등의 불만스런 의견들이 적지 않았다.

또한, 최근 부산시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위한 이 교실 책상 가림막 설치비용으로 4억원이 책정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부산뿐 아니라 강원도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로 7억 54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을 추진

했다. '여학생들에게 치마를 고집하는 학교가 문제'라는 주장과 '꼭 필요한 현실적인 조치'라는 주장이 부딪혔다.

어찌 보면 간단히 바지교복을 허용하면 해결될 일이다. 여전히 교복 또한 학생들의 선택이 아니라 학교의 방침이라는 웃픈현실이 느껴진다. 또 한편으로는 아이러니한 일이다. 지금 당장의 현실로 돌아가면 '가리개'가 설치된 학교 학생들은 '가리개'가 불편하다고 하고 '가리개'가 없는 학교 학생들은 '가리개'가 없어서 불편하다고 아우성이다. 결국 문제는 가리개가 아니라 교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필통편집국]

위험한 등굣길 십 수년, 왜 대책이 없는가?

동명중, 고등학교 위험천만한 등교는 사고를 부른다

진주 동명중, 고등학교의 등굣길 풍경이다. 학교 후문쪽은 비가 오는 날이면 좁은 외길에 학생들을 데려다 주는 부모들의 승용차와 등교하는 학생들로 틈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진다. 가끔씩 접촉사고와 학생들이 다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진주 동명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거의 2천여명 가까운 학생들이 매일 등하교를 한다. 정문 쪽은 그나마 2차선 도로로 되어 있어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역시도 수많은 학생들이 날마다 등하교를 하는 길임에도 인도가 없다. 충분히 인도를 만들 수 있는 도로 폭임에도 웬일인지 그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후문쪽은 심각하다. 1차로의 좁은 농로와도 같은 진입로가 학교 개교 당시와 전혀 다른 많은 학생들의 등하교 길로 이용되고 있

다. 인도는 고사하고 도로 자체가 좁아서 학생들이 몰리는 시간대엔 승용차가 지나가는 것이 쉽지 않을 정도다. 그런데 만일 비라도 내리는 날엔 위험천만한 광경들이 벌어진다. 학생들을 데려다 주는 승용차들이 줄을 잇고 그 차들이 학교 후문에서 다시 돌아 나오기 때문에 등교하는 학생들과 진입하는 차와 나가는 차들이 엉켜서 북새통을 이룬다. 결국 항상 사고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학생들은 학교 가는 길, 지나는 승용차들로 한 발걸음 옮기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할 형편이다.

집 한 두 채에 사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 엄청난 돈을 들여 냇가에 다리를 놓는다. 누구나 그것은 당연하게 나라가 해야 되는 일로 생각한다. 그런데 2천여명이 날마다 등하교를 하는 길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문제제기가 십 수년째 계속 되어도 왜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 직접 당사자가 힘없는 학생들이라서

그런 것일까? 아직 큰 인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일까? 분명한 것은 이곳이 학교가 아니라 상가나 주택가등 이었다면 어떻게든 조치가 취해졌을 것이다. 어른들이 또한 그것을 계속 두고 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도로를 넓히고 인도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당장이라도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등하교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차량 통행을 못하게 하는 부분적인 차없는 거리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다. 후문 진입로 자체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위험하다. 이런 위험이 항상 존재함에도 방치하고 내 버려 둔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큰 사고가 터져야 들여다보고 바로 잡



기엔 우리 사회에는 너무도 가슴아픈 안전사고들을 많이 겪었다. 하루빨리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이 확보되길 바란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당장이라도 울타리 설치, 도로 확장, 인도 개설이 필요하다.

[필통편집국]

자퇴나 검정고시가 인생을 망친다고요?

스스로의 준비와 계획이 없는 자퇴는 순간적인 도피일 뿐

'자퇴'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아마도 긍정적인 이미지 보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연상될 것이다. 그러나 예전 자퇴라 하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나 일부 '문제아'들의 전유물처럼 바라보는 시선이었지만 요즘은 좀 다른 모습들이다.

자신의 진로와 관련되어 학교에서의 공부보다 자퇴가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기도 하고 획일적인 학교 입시보다 실질적인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기도 한다.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에 들어오고 싶지 않았지만 부모님에 의해 강제로 떠밀려 들어온 학생들은 더더욱 자퇴에 대한 고민이 깊다.

실제 학생들의 자퇴율은 얼마나 될까? 2019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전체 학생 중 1.9%가 학업중단 학생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에는 학업 관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기타 부적응이 다음 이유로 나타났다. 실

제 자퇴한 학생 G군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Q. 자퇴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제일 먼저 자유를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넉넉하고 덜 바쁘며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제 주변을 제대로 돌아 볼 수 있게 되며 자아성찰을 할 수 있습니다."

Q. 자퇴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학교를 안 가서 그러니 비교적으로 소외감이 들고 남과 비교되어 상대적 박탈감과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우울해질 수도 있으며 어린 나이에 스스로 결정할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힘듭니다."

Q. 검정고시를 언제 응시하는 것이 좋나요?
"자퇴를 하고 바로 검정고시를 준비해 최대한 빨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자퇴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조언?

"목적이 확실하면 추천합니다. 학교가 싫다고 자퇴하는 것은 제일 비추입니다. 참고로 내가 책임 질 수 있으면 자퇴도 좋은 방법입니다."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정확한 정답은 없다. 나를 관찰하고 제대로 알아야 이 시대에 잘 살아가갈 수 있다. 학교만이 모두가 따라야 할 유일한 길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자퇴고민이나 자퇴 결정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 뚜렷한 목표다. 대학이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길이 목표가 될 수도 있다. 그 길에 학교가 아닌 자퇴라는 과정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학교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많지만 자퇴는 그것을 선택한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준비와 계획이 없는 자퇴는 순간적인 도피일 뿐이다.



누군가 그랬다. '학교는 학교일 뿐이다.' 어차피 학교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도 않고 나를 위해 준비된 학교란 것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떠나고 싶은 곳이라면 길을 찾아보는 노력이 더 우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프고 부딪히면 또,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도망가고 숨으려 하는 내가 될테니 말이다. 자퇴는 자신이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 돼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런 선택이야말로 말로 충분히 존중 받아 마땅한 결정이 아니겠는가.

[필통편집국]

[19금 토크] 여러분은 자위 해봤나요?

여러분은 자위 해봤나요? 청소년이 더 제대로 알아야 할 자기위로!

자위에 대해서 당신은 얼마나 아는가? 일종의 성적 욕구해결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하는 자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공공연하게 말하기엔 사회적으로 금기시된 자위. 이번 19금 토크에서는 이 '자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보려 한다. 뭐든 숨기고 감추기만 하면 잘못된 정보를 갖게 되기도 하고 편견과 오류를 범하게 된다. 청소년에게 자위에 대한 애기와 토론은 금기도 아니고 19금 또한 아니니 터 놓고 함께하길 바란다.

넌 자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A군: "자위로 인한 성욕 해소는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적당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양: "좋게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도 풀고 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나이에 한번쯤은 해 보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손 씻고 깨끗하게 해야 하는 건 친구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C군: "한창 혈기왕성한 이 시기엔 자유롭게 성욕을 푸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D양: "자위라는 단어를 들으면 '으악?' 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지만 사춘기 청소년들에게는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뒤처리도 깔끔하게 한다면 부끄러운 게 아닌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E군: "자위는 청소년기 남성의

본능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F양: "많은 사람들은 자위를 부끄러운 행위, 썩스러운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욕구의 정도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위라는 행위 자체는 너무나도 당연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별에 관계없고 부끄럽다고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날 제 친구가 갑자기 자위를 한다고 해도 크게 놀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G군: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자위행위에 관한 오해와 진실

먼저 자위행위를 하면 남성은 정액이 부족해져 불임이나 발기불능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남성은 한 번 사정하고 1~3일 후면 다시 원래대로 채워지는 기특한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더구나 정액은 평생 지속적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또 자위행위를 자주 하면 머리가 나빠지고 학습 능력이 저하된다고 교육받고 자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무슨 일이든 지나치게 집착하면 해가 되는 법이다. 하루에 3~4번 이상 하는 경우가 아니면 문제가 없다.

혹자들은 자위행위가 성기의 변형과 기형을 유발한다고도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에게 묻는다. 도대체 어떻게 자위행위를 하길래 변한다는 것인가. 단지 성 기구를 사용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 상처

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기를 당부하고 싶을 뿐이다.

간혹 응급 치료 사례를 보면 어떤 여성은 친구 같은 깨지기 쉬운 물건을 사용했다가 병원을 찾았다는 기록이 있고, 어떤 남성은 발기된 성기에 링을 끼웠다가 빠지지 않아 남파를 보아 병원을 찾았다는 기록이 있으나 그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여성이 자위행위를 하면 처녀막이 터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마사지 조금 받는다고 터질 처녀막이 아니다. 자위행위를 하면 질에 냉이 많이 나오거나 냄새가 심하게 나고 색깔이 누렇게 변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다른 신체의 질병이 있는 것이니 병원에 가보길 바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 하나다.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기는 민감한 부분이고 소중한 부분이다. 또한 성적인 흥분에 집착하지 않도록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모든 스트레스는 자위행위를 통해 해소할 수 없다. 자위는 성적인 본능을 일부 해소해 줄 하sk의 방편일 뿐이다. 살아가면서 겪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건전한 취미생활을 꼭 하나씩은 가지는 것을 추천한다. 솔직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시간이 남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오로지 자위만 한다는 것은 너무 재미없지 않은가?



건강한 자위의 4가지 원칙



1. **최책감 갖지 않기** 자위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최책감을 갖게 되면 오히려 집착하게 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오히려 건강하다는 증거이니 밝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자극적인 아동 X** 보통 야동을 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동은 말 그대로 자극적인 것만을 강조하므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저 빠른 사정

을 위해 만든 동영상이므로 나중에 조루가 될 가능성이 있구요. 계속해서 자극적인 것만을 찾기 때문에 집착이 생깁니다. 가급적이면 야동을 보지 않고 상상으로 하는 것을 권합니다.

3. **문 잡그는 에티켓**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라도 보여주면 민망하겠죠? 조용히 혼자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청결하게 손 씻기** 우리 몸에서 세균이 가장 많은 곳이 '손'입니다. 민감한 부위를 만질때는 깨끗하게 손을 씻어 세균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오염이 되면 성병과 같은 무서운 것에 감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청결하게 해야 해요!

자위에 대한 몇 가지 질문



'자위'가 청소년들에게 민감한 주제고 드러내기 쉬운 이야기가 아니어서 필통기자단 학생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질문을 통해 그들의 생각을 엿보기로 했다. 남학생 8명, 여학생 14명이 참여했다.

남학생	여학생
만일 자위를 하다가 부모님에게 들켰다면? (자위를 한다고 가정)	
①시간을 내서 얘기를 한다. (4명) ②모른 척 한다 (2명) ③대화가 끊기고 어색해 질 것 같다. (2명) ④ 누군가에게 상담을 신청한다. (2명)	①시간을 내서 얘기를 한다. (6명) ②모른 척 한다 (3명) ③대화가 끊고 어색해 질 것 같다 (2명) ④기타의견 (들켜도 상관없을 것 같다. 부모님께서 크게 문제 삼지는 않으실 것 같다.)
이성친구가 자위를 한다면?	
①개인의 자유니 상관없다. (6명) ②말리진 않겠지만 기분은 좋지 않을 것 같다. (2명)	①개인의 자유니 상관없다. (12명) ①말리진 않겠지만 기분은 좋지 않을 것 같다. (2명)

여학생들은 남학생 90%이상 자위한다고, 남학생들은 여학생들 절반이상이 자위 안할거라...

실제 청소년들 자신은, 청소년들이 얼마나 자위행위를 한다고 생각할지 궁금했다. 남학생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90% 이상이 자위행위를 할 것이라고 답했고 여학생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20%~50% 정도로 의견이 갈렸다.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이 절반이상은 자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느끼고 있다는 얘기가.



여학생들은 어떻게? 일단 남학생들을 볼 때 다수인 6명이 90%이상 자위를 할 것이라 답했고 70%이상이 4명, 나머지 모두 50% 이상이었다. 여학생들도 남학생들의 대부분은 자위를 한다고 믿고 있는 듯 하다. 그러면 여학생들 스스로는 어떻게 평가할까? 10% 이하 2명, 20% 이하 4명, 30% 이하 3명, 9명의 학생들은 여학생들의 자위행위가 많지 않다고 봤고 50% 이하 2명, 60% 이하 2명, 70% 이하 1명, 5명의 학생은 조금은 다른 의견이었다. 확실한 조사는 아니지만 남학생과 여학생이 서로의 자위행위를 바라보는 약간의 온도차가 있는 듯하다.

[필통편집국]

자위하는 남, 여학생 들작구 인터뷰

Q1. 자신이 해봤던 색다른 자위 방법?

♂: 오일로 해봤어요. 그리고 맨들 들어있는 민트 오일도 좋아요.

♀: 딱히 없어요. 아직 미성년자라 기구나 그런 것이 없어서. 근데 필기구 같은 것은 청결하지 못한 거 같아요.

Q2. 자위를 처음 하게 된 나이? 접하게 된 계기?

♂: 인간의 본능이라 본능적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자위는 신성합니다.^^

♀: 중1때, 우연히 야동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혼자 있고 분위기도 조용해서 호기심에 해보게 됐어요.

Q3. 자위하다가 남한테 걸린 적은? 그때 어땠는지?

♂: 가족이 제 자위장면 본 적이 있는데, 뻘 샅는다고 오래 하지 말랬어요. 근데 진짜 좀 수치스러웠어요.

♀: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고 아주 친한 친구한테만 한다고 이야기 했어요.

Q4. 자위 전의 기분과 자위 후의 기분?

♂: 하기 전에는 약간 오줌 마려운 느낌이고 한 후에는 현타타임 와요...

♀: 하기 전엔 별 다른 기분 없고 하고 나면 너무 피곤해서 자고 싶은 기분? 약간 온몸이 나른해지고 잠이 잘 와요.

Q5. 여성의 자위, 어떻게 생각해?

♂: 나쁜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일상생활 속에서 득이 되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여성의 경우에는 삽사리 자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여성 스스로 당당하고 솔직하게 대하는 자세도 필요할 것 같아요.

♀: 물론 종교와 문화의 가치관이나 신념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자위는 결코 잘못된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이 성적 쾌감을 추구하는 것은 본능이며, 자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잖아요. 단지 몸을 보호하기 위한 절제가 필요할 뿐. 오히려 그런 교육이 부족하게 문제죠.



넌 동아리 시간에 뭐해?

누구에겐 유익하고 누구에겐 시간낭비면 그것 역시 기회의 차별

학생들은 매주 수요일이면 누구나 특별한 시간을 가진다. 바로 동아리 활동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중학교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정규교과 시간과는 차별화해 학생들에게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자율적인 탐구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많은 학생들이 기다리는 시간 중 하나다. 그러나 요즘 이런 동아리 활동을 반기지 않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과연 이유가 무엇일까?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그 시간이 아깝다고 입을 모은다. 학생들의 주장은 동아리 활동 시간이 공부에 방해가 되거나 공부 시간을 뺏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자신의 관심사에 맞게 동아리를 선택해 들어갔지만 실제로 동아리 활동 시간에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몇몇 활동이 활발한 동아리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동아리 활동 시간에 특별히 하는 일 없이 각자 스마트폰을 하고 있거나 동아리 활동과 전혀 상관없는 영상을 보고 있는 경우가 적

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꼴이 되니 시간이 아깝다는 말이 자연스레 나오고 있다는 거다.

심각한 건 일부 동아리들은 유명무실해진 상태라는 것이다. 즉 동아리 이름만 남아있고 실질적인 활동은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물론 모든 동아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활발히 활동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알찬 시간을 보내는 동아리도 물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호하는 동아리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 진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동아리나 인기 있는 동아리에 지원이 몰릴 수밖에 없다. 결국 자신이 원하지 않는 동아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회원이 턱없이 부족한 동아리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름만 유지하고 있는 동아리, 인원이 부족한 동아리, 제대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동아리들은 매주 수요일이 반갑기만 할 수 없게 된다. 당연히 운영이 제대로 될 리 없고 소속 학생들 또한 동아리 시간에

걸 맞는 활동을 할 수도 없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영상만 돌려 보며 시간을 보내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동아리 활동을 완전히 없앨 수도 없다. 2015 개정교육 과정에 포함된 이 활동시간은 예술이나 학술문화, 실습노작, 혹은 청소년 단체 활동으로 채우게 되어 있다. 즉, 필수로 들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말이다. 학교에서 비교과 활동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사고를 유도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이고 지향해야 할 정책이다. 제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분명 문제다. 그 취지에 맞는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이 동시에 존재한다면 그것 역시 상대적 차별인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아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지도교사와 동아리부장이 동아리에 맞는 활



동을 하면서 회원들의 흥미를 이끌어내는 일이 필요하다. 학교는 모든 동아리의 기본적인 활동 모델을 만들고 학생들이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각 동아리와 관련되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지역 내 인력과 자원이 없는지도 고민해 줘야 한다.

수요일 동아리 활동 시간이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기회가 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필통편집국]

마이를 입어야만 외투 허용? 상식밖 외투 규정

학생들 불편하고 건강 해치는 교복 외투 규정 보완해야...

교복을 입는 학교라면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겹옷을 입기 위해서는 마이를 입어야 한다는 교칙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겹옷을 입수하는 경우도 흔히 일어난다는 것을. 학생들의 복장은 대부분 학교에서 교칙으로 정하고 있다. '동복 마이까지 입었을 경우에만 외투를 착용할 수 있고, 색은 단정한 것으로 한다.' 중, 고등학생이라면 한번쯤 들어 봤을 법한 이야기이다. 바로 학교 내에서의 외투착용규제에 대한 내용이다. 학교마다 규제정도와 기간이 다르지만, 몇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공통적으로 외투는 교복 마이 위에만 착용이 가능하다.

학생들은 이러한 외투에 관한 규정이 불편하고 불합리하게 느낀다. 요즘 만들어지는 마이들은 따뜻하게 만들려고 보통 부직포와 같은 재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냥 마이만 입어도 팔을 움직일 때 불편함을 느끼는데, 그 위에 겹옷까지 입는다는 것은 고역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마이 자체가 먼지가 잘 묻는 재질이기 때문에 외투를 털이 들어간 패딩 종류를 입었을 경우 마이가 털 범벅이 되는 것도 흔한 일이라고 한다.

하지만 어떤 학교에서는 아침등교 때나 복장 검사 시간에 이를 적발해 벌점을 주고 마이를 입고 오지 않은 학생은 추운날씨에 외투를 벗고 있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런 규정 속에서 학생들은 "그냥 우리학교는 이렇게 교복을 잘 입는다고 말하기 위한 허례허식 아니냐", "솔직히 왜 입는지 이해가 안 간다." 등 불만을 쏟아낸다.

이런 학생들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외투를 규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빈부격차와 외관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삼는다. 교복이외의 사복을 자유롭게 허용하면, 비싼 브랜드의 옷을 입는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의 빈부격차가 드러난다는 것

이다. 과연 이러한 이유들이 학생의 자유를 빼앗을 만큼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있을까?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지만 학생들은 이 의견에 대부분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일단, 비싼 브랜드를 입는 학생은 아주 소수일 뿐이라 설득력이 떨어지고 외투 때문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미 빈부격차는 드러날 수 밖에 없다는데 굳이 외투만을 문제 삼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또한 학생들이 통일된 교복이 아닌 사복인 외투를 입고 다니는 것에 대한 외부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얘기도 있다. 과연 외투를 입는 것이 학생답지 못한 것인지, 어른들의 시선들 때문에 학생들이 추위에 떨고 건강에 위협을 받으며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학생들의 생활을 규정하는 것은 그들의 바



르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것일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고, 건강을 해칠 위험을 동반하는 외투 규정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한 번 정해지고 늘 그렇게 해왔다고 그것이 반드시 합리적이고 옳은 것일 수는 없다. 학생들 다수가 공감하지 못하는 학교의 외투 규정이라면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필통편집국]

안이한 민방위훈련 진짜 재난에 어찌려고?

학교 민방위 훈련 실제처럼 진지해져야...

사이렌 소리와 함께 '훈련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를 연발하는 방송을 들어 본적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기에 2번, 소위 민방위 훈련을 한다. 20분동안 진행되는 일단 멈춤의 시간이다. 민방위훈련은 재난대비훈련과 민방공훈련으로 나누어진다. 재난대비훈련은 화재나 지진 등 재난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말하며, 민방공훈련은 적의 미사일 도발이나 무력 침공에 대응하는 훈련을 말한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민방위 훈련은 방송부원 학생들이 민방위 훈련 라디오 방송을 들려주거나, 자체적으로 안내 방송을 한다. 교실에 있던 학생들은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질서를 지키며 학교 밖 운동장으로 나가서 교육을 받거나 민방위 훈련이 끝나기를 기다린다.

그렇다면 과연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행해지는 민방위훈련이란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학생들은 '라디오 방송을 나와 선생님들의 안내에 따라 강당으로 가긴 했는데, 다들 떠들고 집합이 제대로 안됐다.', '사이렌이 울려 지시에 따라 운동장으로 나가 민방위 훈련이 끝날 때까지 친구들과 얘기하고 놀았다.' 등이 거의 비슷한 반응들이다. 학생들에게 민방위 훈련 20분은 그저 '노는 시간'이라고 말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또 학교에 따라서 민방위 훈련을 하지 않은 학교도 있다. '민방위 훈련이라는 것도 했어? 우리 학교는 사립이라서 안 하는 것 같다.'라며 민방위 훈련이 시행되는 사실조차 모르는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훈련이라는 것은 원래 실전을 대비하는 것

이라고 배웠다. 이렇게 유명무실한 민방위 훈련을 진행하다 보면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비슷한 실제 상황이 발생한다 해도 훈련의 효과는 전혀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재난이나 위기는 언제든, 누구에나 불시에 닥칠 수 있다. 이런 의미 없는 재난 훈련의 반복이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 없는 '안전불감증'이 나 습득시켜 주지 않을지 걱정이 되기도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어딜가나 '안전'에 대한 목소리는 커졌다. 그러나 정작 민방위훈련조차도 그 의미를 모른 채 시간만 때우고 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재난이나 안전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하든지, 응급처치나 심폐소생술 같이 항상 알고 있고 실제로 할 수 있어야 할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백번 낫지 않을까? 비행기 폭격한다고 줄서서 운동장에 모이는 의미없는 20분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지



답답하다.

민방위 훈련 속 우리 모습이 어쩌면 실제 상황에서의 우리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재난은 예고하지 않는다. 또 나만 피할 길도 없다. 세월호에서, 경주에서도 충분히 경험했지 않은가? 학교에서도 더 세심한 재난 교육을 진행하고 학생들도 민방위 훈련에 좀 더 진지하고 실천같이 참여하여 혹시 모를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

[필통편집국]

[기획] 생리대는 우리 모두의 권리다

생리대, 당당하게 요구할 인간의 기본권

가임 여성에게서 배란이 시작되면, 여성의 몸은 임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궁벽이 두터워지는 등의 신체변화가 생긴다. 수정이 되면 임신이 되지만, 만약 수정이 되지 않고 난자가 죽게 되면, 임신을 준비하던 몸은 다시 다음 배란을 준비하기 위해서 두터워졌던 자궁벽을 허물어버리는데, 이 허물어진 자궁벽 등이 밖으로 배출되는 것이 '생리'다. 배란된 난자가 수정되지 못하고 죽으면 보통 2주후에 생리가 시작된다고 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매달 어김없이 생리통에 시달리고 귀찮게 생리대 착용해야 한다. 하루 이틀에 끝나지도 않고 차이가 있지만 일주일 넘게 고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상생활의 불편도 불편이지만 통증과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뒤따른다. 더구나 성인이 되어 직장생활과 사회 생활속에서 받게 되는 어려운 또한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성의 생리는 인류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성이 임신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인류가 유지 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일반적으로 동물들은 생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왜냐하면 계속적인 종족번식을 위해 생리할 기회를 주지 않고 암컷은 임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류는 자신

들의 가족제도와 사회제도를 만들면서 여성들이 생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다.

즉, 우리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시스템이 여성의 생리를 초래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생리는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고 보호 받아야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생리대 살 돈이 없어서 신발 깔창, 휴지로 버티는 소녀들이 뉴스를 장식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생리대를 사야만 하는 우리나라다. 어느 지방의회에서는 '생리대'라는 말이 회의장에서 쓰기 적절치 못한 말이라 '위생대'라고 써야 한다는 얘기를 할 정도의 미개한 의식 수준을 자랑한다. 급기야 2016년 7월부터 지급되는 재난현장 물품 목록에서 생리대가 위생상 좋지 못하고 개인별 취향이 달라 제외한다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이 내려진다.

생리는 여성들이 주장해야 할 권리다. 또한 남성들이 보장하고 보호해줘야 할 책임이 있다. 왜 여성이 생리대를 돈을 주고 사야 하는 것일까? 극단적인 말 같지만 자신이 원해서 생



리를 하는 여성은 없다. 생리 그 자체가 여성이 인류를 보존하고 생명을 잉태하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 여성들에게 필수적인 생리대조차 돈벌이로 이용되어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팔아먹는 나라, 이런 아니지 않은가?

여성들 삶의 일부인 생리에 대해 아마도 남성들은 잘 모른다. 생리를 왜 하는지? 생리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리에 동반되는 여성들의 심리와 고통이 어떤 것인지. 관심이 없을뿐더러 가르쳐주지도 않는다. 또한 생리대가 왜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어떤 불편

이 있는지. 그것 역시 잘 모른다. 잘 안다면, 우리 사회가 생리를 불결하다는 이미지로 숨겨야 할 것으로 인식할까? 어떻게 돈이 없어서 생리대를 쓰지 못하고, 오르기만 하는 생리대 가격을 쳐다만 보고 있었을까?

생리대는 여성들이 당당히 주장해야 할 인간의 기본권이다. 어쩌면 국가가 여성의 인권차원에서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 여성이라는 이유로 매달 3만원이라는 돈을 지불해야만 하는가? 오히려 그만큼을 감사의 의미를 담은 생리수당으로 받아도 시원찮을 것을 말이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 지급 간담회]

선택할 수 없기에 기본권입니다

지난 10월 31일, 이영실의원이 청소년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필통을 찾았다. 이영실의원은 경남 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보편지급 하는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조례를 만들기 위해 청소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필통기자단이 학생들의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이야기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었다.



이영실의원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월경은 여성이 인간으로 태어나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생리현상으로 세상의 절반인 여성들이 매달 수일간 겪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날' 또는 '마법'으로 불리며 비밀스럽고 특수한 영역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생리는 특수상황 또는 개인 영역의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입니다. 특히 여성청소년의 경우 생리는 건강권뿐만 아니라 학습권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에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제도에서는 지원 대상을 해당 연령 전 범위의 여성청소년이 아닌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만 11세에서 18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생리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 달에 1만500원의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7월 기준 신청률은 68.6% 수준입니다. 경남 역시 청소년 복지를 위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기준 8,133

명의 대상자 중 신청자 수는 6,999명인 실정입니다. 약 1,100명이 신청을 하지 않거나 혹은 신청하지 못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것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무상 생리대 지급 조례가 통과된 후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을 보편 복지로 확대 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 청소년에게 매달 겪어야만 하는 생리는 일상입니다. 생리대를 기호품이나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으로 보고 청소년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세계적으로도 보편적 상식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생리용품을 제공하는 것은 단순히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존중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경남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의 인권지수를 나타내는 큰 지표가 될 여성청소년의 기본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생리대 보편지급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왜 여성들에게만 그 모든 책임을 지우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교육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생리뿐 아니라 성과 관련된 학교에서의 기본적인 교육이 되지 않으니 생리 또한 여성만의 문제로 인식해 버립니다.
(곽성민-전주교2)



아직도 이런 생리를 한다고 말하는 것, 생리대를 빌려달라고 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생리를 하는 것도 눈치를 봐야하고 생리에 대한 정확한 지식도 없습니다. 생리대 무상지급도 좋지만 생리에 대한 보수적인 생각과 더불어 기초적인 지식과 올바른 교육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허윤자-삼현여교2)



누나가 책상위에 생리대를 둔 것을 본 어머니가 '넌 조심성 없게.. 부끄럽게 이런걸 아무데나 두냐'며 야단을 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이상했고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그냥 '생리대' 일뿐인데... 생리용품과 다를 바 없는 '생리대'를 왜 부끄러워하고 들키면 혼나야 하는 물건으로 다들 생각하는가 조금 헛갈렸습니다.
(이영광-진주기공2)



우리의 선택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지출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생리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생리대가 아무리 좋아도 안하는 것보다 불편하고 힘듭니다. 여성들은 그렇게 싫은 것을 일생동안 사비로 감당해야합니다. 이런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예은-삼현여교2)



청소년 생리대 무상지급이 바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실시된다면 어른들의 의견보다 학생들의 의견이 많이 담겨서 청소년들이 정말 편리하고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정예람-진주여교2)

서울 구로구,
중고생 생리대
무상지원
1인당 월 30개까지



서울 구로구가 관내 모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생리대를 무상 지원한다. 구로구는 올해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 생리대 보관함을 설치하고, 내년에는 중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0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구로구에 거주하는 만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 생리컵 등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대부분 학교가 보건실에 생리대를 비치했다. 급하게 생리대가 필요한 학생들은 보건실을 방문해 이용대장을 작성해야 했다. 하지만 필요할 때마다 보건실을 찾아야 한다는 불편함과 함께 수칙성, 낙인 효과로 인해 이용률이 낮았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접근성, 편리성, 관리 효율성 등을 고려해 화장실에 생리대 보관함을 설치하기로 했다. 생리대 보관함에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생리대 3종을 비치해 원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구로구는 매달 총 9만7000여개 분량의 생리대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여성청소년이면 누구나 매달 30개까지 자유롭게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다.

학교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는 불편한 진실

학생들에 대한 불신이 똥 놀 자유를 침해하다니...

이런 번이 있나? 누구나 화장실을 들어 설 때 급하거나 속이 힘들 때가 있다. 그러나 일을 마치고 평화가 찾아 온다. 아뵘! 그런데 화장지가 없다. 식상한 유머나 코미디의 한 장면 같지만 실제로 당신에게 벌어진 일이라면 당황스럽고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 당연히 화장실에는 화장지가 비치되어 있는 것이 상식이다. 공중화장실은 더욱 그럴 것이다. 그러나 왜 학교는 다른 것일까? 날마다 그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인데 왜 화장지는 찾을 수 없을까?

진주고, 대아고, 명신고, 삼현여고, 진주여고, 경진고, 경해여고 등의 학교에는 화장지 통이 개별 화장실 안에 비치되어 있지만 막상 화장지를 넣어 놓지는 않는다. 너무 급해서 화장실을 향해 달려들어도 화장지를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안타깝게도 화장지가 비치되어 있는 곳은 대부분 화장실과 다소

거리가 먼 곳인 교실 안 또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복도다. 이런 경우도 여러 번이 하나의 휴지를 사용하니 턱없이 화장지가 부족하기 일쑤라고 한다. M고의 한 학생은 '거의 모든 학생이 화장지를 들고 다닐 정도예요. 화장지도 학교에서 개인 필수품이 되어 버렸어요.'라고 불만스럽게 말했다.

배변은 사람의 기본적인 생리현상이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생들이 편하게 배변을 못하게 한다면 그것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면 왜 화장실 안에 화장지가 사라져 버린 것일까?

학교에서 말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무분별한 화장지 사용이다. 화장실에 화장지를 비치하면 학생들이 주인 의식 없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막 쓴다는 것이다. 화장실 용도 이외로 쓰기도 하고 몰래 가져가기도 한다는 것이다.

즉, 학생들의 화장지 사용에 대한 불신이 화장실에 화장지를 둘 수 없게 만들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결정일까? 분명 학생들의 잘못된 의식과 행동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그 역시 학교가 학생들에게 교육해야 할 공동체 생활이고 예의고 배려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육하고 토론해서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야지 학생들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휴지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옳은 일도 아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곳이다. 교육은 단순히 교실에서 수업만 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사귀고 웃고 즐기며 고민하는 학교생활의 모든 것이 교육일 것이다. 화장지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낭비는 공공시설 사용에 대한 교육으로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는 학교, 그것이 정상 일리는 없다. 학생들의 불편은 분명한 사실이다.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학생들 화장실 화장지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일까? 학생들은 화장실 화장지 비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학교측은 학생들에 대한 불신을 거두고 화장실에 화장지가 늘 있어도 아무 문제없는 학교를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지금부터 화장지를 걸어보길 바란다.

[필통편집국]

교내 커플의 애정행각 규제해야 할까?

연애금지 교칙 NO, 학생도 연애하고 사랑할 권리가 있다

학생은 연애를 하면 안 된다. 남녀공학을 다니고 있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교내에서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고 다니는 등의 애정행각을 하고 있는 커플들을 본 적 있을 것이다. 남녀공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경우 매일 학교에서 보는 만큼 학생 사이에 호감이 싹트기도 한다. 어떻게 보면 남녀공학에서 교내 커플이 있는 건 당연한 일이다. (물론 동성 커플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학교의 교사들은 학생들의 연애교제를 반대하거나 그들을 불건전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자유분방한 10대의 연애가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고 연애를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지 못 할 행동이라 생각한다. 어떤 학교에서는 교사가 직접 애정행각을 하지 말라고 교내 방송을 하기도 하고 적발된 학생들 부모에

게 교제 사실을 알리기도 한다. 불만이 토로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2015년 통계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431명이 교내 애정행각으로 처벌받았으며 2322개 고등학교 중 연애 금지 관련 교칙이 있는 학교는 1190곳(51.2%)에 이른다. 진주 관내 거의 모든 남녀공학 중 · 고등학교에서도 정도만 다를 뿐 학생들의 교내 애정행각에 대한 제재는 존재하고 그에 따른 징계가 반드시 따른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진주시 관내 남녀공학 4개의 중학교와 3개 고등학교의 학교교칙을 모두 살펴본다. 그 중 4개의 학교에 이성교제에 관해 언급된 규정이 있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칙에서 학생들의 애정행각을 금지하고 그에 대한 처벌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는데 몇몇 학교는 오히려 이성교제 관련 교칙이 아예 없었다. 심지어 문

산중학교는 오히려 개방된 장소에서의 이성교제를 권장하는 교칙 조항이 있어 이채로웠다.

〈K중학교 교칙〉 제3장 기본 품행 제10조(이성교제)
③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금한다.
〈M중학교 교칙〉 제20조(이성교제)
4. 남녀학생 단 둘이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50% 이상이 연애교제의 경험이 있고 최초 연애 시기도 초등학교인 경우가 30~40%에 달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연애교제가 매우 보편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바람직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사랑에 잘못을 묻는 학교라니, 어찌보면 이렇게 반교육적일수가 없다. 학교내에서 너무 과한 애정행각은 옳다고 할 수 없지만 남, 여 학생이 함께 오랜시간 일상을 공유하는 공간에서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감정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과다. 학생들 간의 연애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고 금할 것이 아니라 학교라는 공간에서 대다수가 공감하는 연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도 분명한 인격체로 연애하고 사랑할 권리가 있다. 청소년들이 더 예쁘고 자유로운 사랑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필통편집국]

불법촬영, 무방비로 당하기만 해야 하나?

화장실을 매일 검사해야 하는 나라, 처벌수위 높여 불법촬영 없애자

몰카공화국이라 불린다. 우리나라 얘기다. 정확히 몰래카메라가 아니라 불법촬영이다. 즉 재미있는 TV 예능으로 '몰카'가 아니라 '불법촬영'으로 명백히 범죄라는 것이다. 불법촬영이 일상이 되면서 특히 여성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불법촬영 된 영상이 인터넷이나 채팅방 등으로 유포되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촬영은 주로 일반 건물의 공중화장실, 학교 내의 화장실 또는 탈의실, 회사 내의 화장실, 지하철 등 많은 사람의 발길이 닿는 곳에 설치되는데 집이나 숙박업소처럼 개인적인 공간에까지 설치되고 있다.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69%가 "불법촬영으로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경찰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몰카 등의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14년 6623건, 2015년 7623건, 2016년 5185건, 2017년 6465건, 2018년 5925건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불법촬영은 죄질이 악하고 또 다른 범행에 비해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통계에 따라 최근 연 처벌의 수위가 높아졌다. 촬영하고 누군가와 공유하거나 유포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한 이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했을 시에는 가중처벌을 받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처벌은 벌금형과 집행유예에 그쳐 '숨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높다.

그렇다면 과연 학생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J고등학교의 여학생 50명을 대상으로 공중화장실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공중화장실을 '아예 이용하지 않는다'는 5명, '어쩔 수 없이 이용한다'는 26명, '어느 정도 확인 후에 이용한다'는 19명이었다. 또한 설문조사 대상자 중 21명(약 42%)은 몰카에 대처하는(찾는) 방법을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방법을 알아도 실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매일 화장실을 검사해야 하는 나라, 언제까지 그런 비아냥대는 외신을 들어야 하나? 여성들이 일상에서 불안함에 떠는 사회가 정당한가?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무방비로 당하기만 하고 그저 행운을 바라며 생활할 수는 없다. 개인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최근엔 개인이 쉽게 휴대할 수 있는 '몰카드', '퇴치카드' 등의 탐지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탐지기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땐 와이파이를 검색해보는 방법이 있다. 만약 와이파이 목록에 지나치게 긴 이름이 뜬다면 한번쯤 의심해봐야 한다. 하지만 이런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성은 떨어진다.

불법촬영을 막는 실질적인 방법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경찰이나 지자체 등에서 지속적인 불법촬영 탐지 서비스를 해야 한다. 일반 시민들을 위한 장비대여 서비스도 좋은 방법이다. 개인적으로 불법촬영을 발견하게 될 경



우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혹 인터넷에 자신의 영상을 확인했을 때도 신고가 어려우면 상담이라도 해서 범죄자가 처벌 받도록 만들어야 한다. 피해자나 예비피해자의 침묵은 범죄자를 더 자유롭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불법촬영범죄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누구에게나 인정될 정도의 상식이 되어야 한다. 사람을 불법으로 촬영하는 것, 그것을 보는 것도 범죄 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필통편집국]

붕어빵
아자씨

[겨울엔 팔이 생각나/ 붕어빵 아자씨]

12월, 찬바람을 맞게 할
붕어빵 아자씨

찬 바람이 부는 계절이 돌아오면 어김없이 찾게 되는 붕어빵. 어묵, 떡볶이 등 대표적인 겨울 간식들을 갖춰 놓고 연신 뜨거운 화덕 앞에서 붕어빵을 구우며 고소한 냄새로 손님들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는 가게가 있다. 입구에는 붕어빵 틀위에 노릇하게 구워진 붕어빵이 줄지어 있고, 조금 더 들어가면 뜨거운 오징어 국물속에 꼬지에 꼽힌 어묵들이 줄지어 있다. 어묵 옆에는 어묵의 베스트 팔링 떡볶이! 여기가 바로 겨울 맛집 '붕어빵아자씨'다.

붕어빵 아자씨는 진주에 2곳, 산안동과 상봉동에 있다. 아버지와 아들, 부자가 운영하는 특별한 프랜차이즈(?) 가게다. 원조인 아버지가 먼저 산안동에 터를 잡고 운영하였는데 그 뒤에 아들이 뒤를 이어 상봉동에 분점을 내어서 일하고 있다.

- 붕어빵 반죽은 매일 저녁에 다음날 쓸 만큼의 양만 만들어 사용한다.
- 빵이 다른 곳보다 도톰하고 조각갈이 모양이 예쁘다.
- 400원에 1개, 1000원에 3개, 3000원 10개
-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대기시간은 랜덤
- 주의! 비닐봉지에 계속 넣고 있으면 눅눅해진다.
- 여름에는 눈꽃빙수를 판다.



[특집] 2021년 진주시 필통 맛집 지도

2021년 진주시

땡초김밥
본점

[진주가 원조인 별미, 땡초김밥]

매운맛 좀 볼래!! 산뜻한 봄바람, 땡초 향기와 함께



진주에선 9개 매장이 있다. 땡초김밥은 지난 2003년 본점인 진주 대안동을 시작으로 총 19개의 가맹점이 활발한 영업을 하고 있다. 진주에는 땡초김밥 본점을 비롯 금산점, 하대점, 산안평거점, 옥봉점, 충무공동점 등 9개 매장에서 땡초김밥을 만날 수 있다. 땡초김밥은 16년 동안 한결같은 맛을 통해 진주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는 진주가 자랑하는 별미 음식이다.

영문
진사갈비
신안점

[무한으로 즐겨요~! 영문진사갈비를 가다]

양념갈비에 음료와 밥도 무한리필! 과연 그 맛은?



진주시 내에는 6개의 체인 매장이 있다. 평거점/금산점/신안점/주악점/초전점/혁신도시점이다. 영업 시간은 매일 12:00~23:00/ 오픈 시간은 오전 10시이고 저녁 11시까지 영업을 한다. 평일에는 3시부터 5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이 있고 주말에는 없다고 한다. 무한리필이긴 하지만 제한 시간이 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이용 시간이 100분으로 제한된다고 한다. 평일에는 120분이다.

- 술불태갈비 무한리필 (고기밥, 음료 포함)
- 성인 13500원 / 8-10세 8000원 / 5-7세 6000원
- 무한리필 이용시간 : 평일 120분/주말 100분
- *포장 불가(반려동물에게 준다고 해도 불가) *매장 내 모든 음식은 내부에서만 식사 가능

가마솥
팔칼국수

[겨울엔 팔이 생각나/ 가마솥 팔칼국수]

12월, 찬바람을 맞게 할 가마솥 팔칼국수



추운 겨울, 보가만 해도 따뜻해지는 느낌의 외판이다. 정겨운 간판에 먹음직스러운 음식과 가마솥이 함께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진주 평거동에 위치한 가마솥 팔칼국수다. 소금과 설탕, 통치미와 깍두기, 팔칼국수에 대단한 반찬이 필요 없지만 깍두기가 칼국수를 더 감칠맛 나게 한다. 추운 겨울 마음까지 따뜻하게 하는 팔칼국수는 이제 어른들만의 전유물이 아닐 듯 하다.

팔칼국수 6,000원/ 새싹팔국 7,000원이다

[맛과 행복을 만든다는 망치공장]

이렇게 크고 맛있는 돈가스 먹어봤나 복쉬?
심쿵쿵 망치공장!

망치공장

[돈가스 전문점 1440수제이야기]

하루 1440분의 비밀
골목식당 돈파스가 이런 맛 아닐까요?

찰암동 미르치과 골목 안으로 들어가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빨간색 건물이 보인다. 벽면은 건물 내부가 잘 보이는 유리로 되어있어 바깥에서도 가게의 깔끔한 인테리어 구조를 볼 수 있다. 건물엔 1440이라는 숫자가 환하게 빛나고 있다. 하루는 24시간, 분으로 나누면 1440분이

다. 여기서 판매되는 돈가스와 가라아게를 만드는 재료, 즉 고기를 하루 24시간 (1440분) 동안 숙성시키기 때문에 이름을 1440 수제이야기라고 지었다고 한다.

-경남 진주시 강남로 189번길 24-1(☎ 055-755-1440)

-오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영업을 하고, 마지막 주문은 9시 30분까지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

1440
수제
이야기곰분이
곰창

[세상에 없던 곰창? 칠암동 곰분이 곰창]

세상에 없던 곰창을 선보이다?!
직화의 숯불향을
진주 곰분이 곰창에서 느껴봐!나는 너뿐이고
우리는 둘뿐이고

필통 추천 맛집 지도

수복빵집

[겨울엔 팔이 생각나/ 수복빵집]

12월, 찬바람을 잊게 할 수복빵집



요즘 청소년들에게 마카롱이 있다면, 젊은 시절의 부모님에게도 '핫한 디저트'가 있었다. 바로 '편빵'이다. 80·90년대 학생들의 미팅 성지가 되기도 했던 '편빵', 특히 진주시에서는 선생님이 빵집을 단속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바로 '수복빵집'.

○위치: 경남 진주시 축석로 201번길 12-1(명안동 151번지)

○전화: 055-741-0520

○운영시간: 매일 12:30~15:30까지 재료 소진시 마감하기도 한다

○메뉴: 편빵, 단팥죽, 꿀빵, 팔방수를 판다. 편빵(4개/1인분) 3000원, 팔방수 6000원.

쫀득한 빵 위에 달달한 단팥 소스가 얹어진 편빵이 대표 메뉴인 수복빵집은 편빵뿐만 아니라 꿀빵, 단팥죽, 그리고 팔방수까지 판매 중이다. 수복 빵집의 편빵을 직접 먹어보니 이때까지 맛보지 못한 새로운 맛이였다. 속에 팔이 든 편빵과는 달리 미끈한 단팥 소스가 애워싼 수복 빵집의 편빵은 입안에 달콤함을 더해 주었다. 진주 대표 빵맛집이며 SNS 생활의 달인 등 여러 방송에도 전파를 탄 유명한 곳이다.

[진주 대안동 디델리 라볶이]

라볶이가 탱길 때, 우리는 차없는거리 디델리로 간다?



디델리 라볶이

★디델리는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1069번길 3-1(대안동 14-5)/ 차없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 15년 동안 같은 자리, 같은 사장님이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 주메뉴는 라볶이와 참치김밥이다. 라볶이 5,000원/ 치즈라볶이 6,500원/ 참치김밥 3,000원이다. 사장님께서 라볶이 그릇 뜨겁다고 조심하라고 말해주신다! 데이지 않게 조심하세요~

"진주 디델리는 중고등학생들의 단골집이죠 그 단골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많이 찾는 집인 것 같아요. 치즈라볶이 강추합니다. 갈 때마다 항상 그 맛인 것 같아요. 라볶이 안에 가래떡도 있지만, 떡국떡도 있고, 만두, 계란, 라면사리가 있어 좋아요."

마라탕 라맛콩부

[하대동 마라탕 맛집 라맛콩부]

얼얼할 마, 매울 라
인싸 음식 마라탕 도전기!



행한다. 화궤와 비슷한 종류이며, 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다. 동북지역에서는 마라탕(고추)이라고 불리며, "쓰촨 마라탕"이라고 불리는 음식과는 그다지 비슷하지 않다. 고추를 육수에 담가 사바사바처럼 먹는 마라탕도 있으며, 원하는 재료를 담아 한번에 조리하는 마라탕도 있다. 마라탕은 얼얼한 맛을 내는 중국 향신료를 이용해 만든다. 마라는 얼얼할 마(麻), 매울 라(辣)라는 뜻으로, 맵고 얼얼한 탕 요리이다. 마라탕의 허가 얼얼하게 마비되는 듯한 느낌은 화자오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각종 sns에서 유행 중인 마라탕, 마라탕은 중국 사바사바에서 변형된 중국 전통음식이다. 한국인의 입맛에 맞도록 중국 음식 특유의 향신료를 사용하지 않아 시원한 국물 육수에 각종 재료를 넣고 끓인 얼얼한 국물 맛이 특징인 탕 요리이다.

-위치: 진주시 모덕로 221(하대동 343-10번지)

-영업시간: 오전 11시 ~ 오후 11시

-휴무일: 24째 주 월요일은 쉽니다.

얼얼할 마(麻), 매울 라(辣)

쓰촨 라산에서 유래한 중국의 음식이다. 특히 베이징에서 유

춘천 닭갈비 본점

[춘천닭갈비 진주본점을 찾아서]

삼현여중 앞, 춘천닭갈비, 짬뽕닭갈비가 생길 정도의 닭갈비 클래스



삼현여고 닭갈비만 브랜드(?)가 생길정도로 유명한 학교 앞 맛집의 선두주자, 삼현여고 앞 춘천닭갈비다. 식당안은 늘 손님으로 가득하다.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인터뷰를 하지 못할 정도였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삼현 닭갈비를 찾는다. 9000원부터 시작하는 가격이고 한 끼 식사로 학생들에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여럿이 함께 둘러앉은 학생들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1000원추가시 볶음밥까지 이용할 수 있다.

-위치: 경남 진주시 포돌로 122 (상대동 삼현여중 앞)

-영업시간: 매일 11:00 ~ 24:00 (일요일 휴무)/ 14시부터 17시까지는 브레이크타임이다.

[가좌동 '사마'를 찾았습니다]

요즘 난리 난 육즙폭탄 대창덮밥!
직접 드셔보셨나요?!



사마는 깔끔하고 정갈한 분위기다. 일본식 카페 전문점이지만 우리나라 분들이 운영하고 계신다. XNO JAPANX 최근 일본분매운동 때문에 걱정이지만 일본브랜드도 아니고 일본산 식재료도 아니니 편하게 찾아도 될 듯하다.

조금 골목길에 있지만 대학 근처에 자리한 만큼 분위기 좋은 외관으로 시선을 끈다. 일식집의 동양적인 분위기와 약간의 서양적인 건물 모습이 세련되게 어울려진다. 최근 맛집으로 등극하며 피크타임에는 웨이팅도 있고 오후만 되면 재료가 항상 소진 되는 핫한 식당이다.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길64번길 3-1 1층 (가좌동 1436-5번지)

-영업시간: 평일 오전11시~오후9시(3시~5시 브레이크 타임)/ 주말 11시 30분

사마

유부집

[가좌동 유부집을 가다]

가성비 끝판의 든든한 한 끼. 이런 대왕 유부초밥은 처음이지?



일느낌인 테이블이 독특하다. 테이블 2인석이 6개 정도, 그리고 4인석 1개다. 카운터로 가서 주문과 동시에 선결제 하는 시스템이다. ○셀프코너가 있다. 식기, 물, 육수 등은 셀프바에서 이용할 수 있다. 수저, 앞접시, 칼바나, 물, 육수 모두 셀프다. 음식도 직접 가져가러 가야된다.

○초밥 종류는 여섯가지. 유부초밥 가격대는 2피스에 3600~4200원 사이. 기본 맛인 참치와 계란은 3600원, 고기는 3800원, 새우는 4200원이다. 유부초밥 한개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2피스 가격으로 꽤 괜찮다는 평이다.

[필통편집국]



SNS 상에서 10대에게는 금강 맛집으로, 20대에게는 분위기와 맛있는 안주로 소문이 자자한 '곰보이 곱창' 맛집. 위치는 고속버스터미널 정류장에 내려면 도보로 3분 정도에 위치. 진주점은 과거에 쪽을 해 6월 오픈했고, 올해 8월 가좌동 경상대점도 오픈. 간판부터가 레트로 느낌 뽐낸다. "진주점-진주시 동진로 34번길 7-1/ 경상대점-진주시 진주대로 552 유시티 1층 112호"

○영업시간은 진주점은 16:00~2:00까지. 경상대점은 마감시간이 한 시간 늘어난 16:00~3:00다. 점심시간에는 영업을 하지 않으니 저녁에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2인분 이상 주문이 가능. 직화곱창 10,000 / 직화막창 12,000

○기본 상차림은 어묵탕, 각종 소스, 마늘과 고추, 양파장아찌, 상추다. 소스는 마요네즈(+고추냉이)칠판 소스쌈장 이렇게 3가지인데 고추냉이가 1도 안 매워서 마요네즈에 많이 섞어 먹어도 하나도 안 맵다. 기본으로 나오는 어묵탕? 유부? 후추맛 딱딱하고 의외로 맛있다. 이곳은 어묵탕 맛집!

○눈꽃 치즈를 추가하면 사장님께서 눈꽃 치즈를 뿌린 뒤 토치로 불 쇼를 해주신다. 먹고 난 뒤 곱창을 남겨서 볶음밥은 필수

3.1운동 100주년, 여전히 학교에는 일제 잔재

학교내 친일 잔재들을 언제까지 내버려 둘 것인가

3·1혁명 100주년, 건국 100주년 그리고 해방 74년을 맞았지만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일본제국주의 망령과 그들이 할켜 놓은 아물지 않은 상처에 아파하고 있다. 친일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우리 현대사를 들추지 않더라도 우리 가까이에 일제 잔재는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다.

바로 학교다. 적어도 이제 모른 채 지내서는 안 되는 것 아닐까? 알고는 있어야 한다. 그래야 없애고 바꾸고 고칠 수 있을테니 말이다. 하나씩 살펴보자. 먼저 얼마 전 있었던 졸업식 때 교복을 훼손하는 텃돌이와 교실 칠판 위에 있는 태극기를 예로 들 수 있다.

졸업식이 끝난 후 밀가루를 뿌리고 교복을 찢는 모습을 보곤 한다. 일제시대 때 학생들은 일본식 교복을 입어야 했기에 졸업을 함으로써 교복을 더 이상 입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을 교복 찢기와 밀가루 뿌리기로 분출 한 것이

유래가 된 졸업뒤돌이는 결코 웃으며 넘여가선 안 될 슬픈 역사가 숨어 있다.

그리고 학교생활 속에서 항상 교실 칠판 위에 태극기가 걸려 있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이것이 일제강점기와 관련이 있다고 하면 믿을 수 있을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태극기를 액자 안에 넣어서 게시해 놓은 학교들이 많았다. 이것은 일제가 민족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일장기를 액자에 넣어 게양했던 것에서 유래 된 것이다.

이뿐 아니다. 인권침해라는 끊임없는 지적을 받고 있는 두발·복장 검사며 일본식 교육 문화, 군대식 거수경례, 아침조회 같은 문화도 식민지시대 그대로다. 또 식민지시대부터 계속되어 오던 수학여행은 얼마나 교육적이기에 바꿀 생각조차 않고 있는 것인가? 대표적인 일제잔재의 하나로 꼽히는 운동장 조희대(구령대)도 지금도 위풍당당하게 운동장을 지키

고 있다. 성적표기 방식으로 '수-우-미-양-가'도 그대로 남아 있다. 일본 전국시대에 사무라이들이 누가 적의 목을 많이 베어오느냐에 따라 '수우양가'로 표기하던 이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학생들을 그렇게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학교에서의 식민지 잔재청산문제는 더 깊은 곳까지 스며있다. 식민지시대 교명을 그대로 쓰고 있는 학교가 너무 많다. 학교 이름 중에는 제일 중학교, 동중, 서중, 중앙고, 제 1고와 같이 순서나 방위를 나타내는 교명은 식민지시대 잔재다. 일본의 수호신이 태양신이라는 것에서 동중학교는 일본 학생이, 서중학교는 조선 학생들이 다니던 학교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황국신민 정신을 주입하기 위해 시행하던 애국조례며 일본식 군국주의 교육의 잔재인 '차렷, 경례'도 그대로다. 복장위반이나 지각생들을 단속하던 교문지도는 바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한국사 시간 혹은 평상시에도 일제강점기를 배우거나 일제잔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면 100이면 10명 모두 다 그 당사를 떠올리며 분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과 가장 가까운 학교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친일잔재들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친일 청산도 중요하지만 별 생각 없이 지나쳐 버린 학교 속에 숨어 있는 식민지시대의 흔적을 살펴보고 적은 것부터 바꾸고 고쳐나가는 노력이 절실해지는 요즘이다.

[필통편집국]

10시면 왜 모두 청소년 유해장소가 되는가?

PC방 노래방 10시 출입금지 전면 재검토되어야...

청소년들은 PC방, 노래방에 자주 간다. 시간을 때우러 가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찾기도 한다. 이 장소들은 공통점이 있다. 밤 10시부터 청소년들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제 학생들 스스로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만고의 진리처럼 된 규제다. 하지만 대체 왜? 9시59분까지는 즐겁게 스트레스를 풀며 친구들과 함께 있던 공간이 1분 만에 불법장소, 청소년 유해 환경이 되어 버리는지 청소년들에게 이해시키지 않는다.

청소년 보호법에서 PC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출입이 제한된다. 제한적으로 보호자를 동반하면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출입할 수가 있다. 노래방 역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출입이 제한된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미숙하

고 어린 청소년들이 밤늦게 돌아다니면 위험하니까 10시 이후에는 안전한 집에 있으란 얘기처럼 들린다. 하지만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다. 현실 청소년들에게 10시는 너무나 이른 시간이고 활발히 활동하는 시간이다. 같은 시간 학교 야간자율학습이 마칠 즈음이고 학원가에는 학생들로 넘쳐나는 시간이다. 똑같은 시간 학생들이 학교나 학원에 있거나 편의점이나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괜찮고 건전하며 노래방, PC방, 찜질방 등에 있으면 불법이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하는 비행 청소년이 된다는 이상한 논리가 성립이 된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이 유해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막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노래방과 PC방이 유해 업소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과연 PC방과 노래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공간일까? 아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고 스트레스를 푸는 곳이다.

숨통처럼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공간마저 청소년보호라는 미명아래 학생들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은 현실을 완전 무시한 탁상행정이자 옳지 못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으려면 10시 이후 그 어떤 곳에서도 청소년들은 있으면 안 된다. 모두 강제 귀가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야간자율학습,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은 되고 PC방이나 노래방에서 놀면 안 된다는 논리는 그 누구도 이해 할 수 없는 해괴한 이야기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 또 학교를 마치고도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도 많다. 그 외에도 늦은 시간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환경속에 거의 유일한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이자 놀이공간이 노래방과 PC방인 셈이다.



10시라는 기준을 두고 학생들의 현실적인 문화공간이자 스트레스 탈출구인 PC방이나 노래방의 출입을 막는 것은 분명 재검토가 필요한 정책이다. 백 번 양보해서 요즘 청소년들의 활동 시간을 고려해 보더라도 출입규제 시간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PC방과 노래방에서 청소년들을 내 쫓는 것이 어떻게 청소년 보호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도 하고 잘 놀게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실시하는 것. 그것이 곧 청소년을 진정 보호하는 길이다.

[필통편집국]

거스름돈, 백 원 돌려주세요!

시내버스 요금 결제시 거스름돈 지급문제 개선해야

버스는 학생들에게 어떤 존재일까. 학생들이 등교를 할 때, 친구들과 놀러 갈 때, 급하게 어디론가 가야 할 때, 가장 자주 이용하는 대중교통이 버스일 것이다. 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현금을 내거나 교통카드를 찍고 탑승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런데 버스를 이용할 때 누군가가 내 돈을 가로채거나 훔쳐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학생들은 버스를 탈 때 대부분 교통카드를 이용하는데, 보통은 그냥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찍고 타면 된다. 그런데 교통카드를 새로 사거나, 부득이하게 성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카드를 단말기에 찍을 땐 "학생이요!"라고 말하고 타야 한다. 그러나 요즘 버스기사들은 이 말을 못 들은 채 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결국 혼잡스럽기도 하고 빠르게 출발해야 하는 버스에서 그냥 성인 요금을 찍고 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학생은 정

당하게 학생 요금을 내면 되고 버스회사는 당연히 학생에게는 학생 요금을 받아야 한다. 왜 오히려 학생들이 눈치를 살피며 성인요금을 결제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돌려받지 못한 돈은 대체 누구의 책임인지 묻고 싶다.

현금을 내고 버스를 탈 때도 이런 상황은 똑같이 발생한다. 교통카드를 집에 두고 왔을 때, 또는 교통카드에 돈이 충분하지 않을 때 학생들은 현금을 내고 버스를 타게 된다. 문제는 버스 기사들이 정확히 계산해 거스름돈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5년 8월 1일부터 개정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진주시의 버스 요금은 현금시 어린이 650원, 학생 900원, 성인 1,300원이다. 학생들이 1,000원을 내고 버스를 타면 거스름돈 100원을 거슬러주지 않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버스비로 피해를 본 학생들에게 인터뷰를 해보았다. J고 정○○학생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찍을 때 학생 들어요 라고 말했는데 성인 요금으로 찍혔어요." B고 박○○학생 "교통카드가 성인으로 되어있어서 등교하는데 학생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못 들은 채 하시길래 직접 요금 입력하고 카드 찍었어요." "현금밖에 없어서 1000원을 냈는데 기사 아저씨가 반응이 없어서 당황했어요. 또 달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100원이라는 적은 금액이라서 문제가 안 되는 것일까? 복잡하고 바쁜 시간에 거스름돈까지 요구하는 것은 버스나 버스기사를 배려하지 못하는 것일까? 사소한 문제니까 그냥 넘겨야 하는 것일까? 아니다.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도 학생들의 권리와 또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고 얼마가 되던 거스름돈을



정확히 돌려받는 것 역시 너무도 당연한 권리다. 물론 모든 버스기사들이 다 그런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버스회사와 버스기사는 학생들의 권리를 지켜줘야 하고 그 권리를 행사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학생들도 당연히 요구해야 한다. '100원 주세요' 라고 말이다.

[필통편집국]

[씨네통통] 꼭 봐야 할 청소년 영화들 BEST

코로나시대 우리들의 영화를

코로나로 누구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지금은 정상등교가 이루어지고 있어 그나마 다행인 상황이다. 학년별 순환 등교나 등교 없이 온라인 수업만 진행될 땐 아마도 모든 학생들은 학교를 그리워했지 싶다. 정상등교라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학생들의 여가생활이나 놀이문화에도 적잖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비대면 문화가 급격히 늘면서 학생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환경으로 학생들 사이에선 영화가 관심을 끄는 콘텐츠로 주목 받고 있다. 손쉽게 접할 수 있고 언제든지 감상할 수 있는 조건은 다양하고 많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 '씨네통통'에서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다룬 청소년이 꼭 봐야 할 영화를 엄선해 소개한다. 한편씩 정주행하며 코로나 시대를 이겨나갔으면 한다.

정주행하다



영화 파수꾼의 한 장면

파수꾼 Bleak Night, 2010 제작

"내가 날 한번이라도 친구로 생각한 적 있어?"

한 남자 고등학생이 죽는다. 영화에서는 딱히 그 장면이 보이지 않지만,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짐작된다. 아들의 죽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조성하)는 생업을 미뤄두고, 아들의 삶을 역추적해 나간다. 장례식때 찾아온 아이도 만나고, 아들 앨범속에 있는 사진들을 보고 친구들을 수소문한다. 아버지는 아들 기태(이재훈)와 절친인 최준(박정민), 동윤(서준영) 사이에 우정에 금이 간 것을 짐작하게 된다. 한 아이는 전학가고, 한 아이는 학교를 중퇴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고 장례식에조차 오지 않았다. '베프'들이었던 그 세 친구들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천진하고 순수했던 그 시절, 미성숙한 소통의 오해가 불러일으킨 비극적 파국. 독단적 우정이 가져온 폭력과 그 상처의 전염은 우리를 아프고 충격적인 결말로 이끌어가간다.

이 영화는 윤성현 감독의 한국영화아카데미 졸업작품으로, 꼭 개봉을 염두에 두고 찍은 영화는 아니라고 한다. 배우들 총 출연료 518만원을 포함해 5000만원의 제작비만으로 청소년의 성장을 다룬 한국영화의 걸작을 남겼으니 감독의 천재성을 짐작할 수 있다.

필통기자의 관람평

허윤지(삼현여고2)기자

10대들이 한 번은 봐야 할 영화로 많이 꼽히는 영화 중 하나다. 그래서인지 관람 전부터 기대를 많이 했다. 하지만 영화 속 이야기 전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보는 내내 정신이 없었다. 기대가 컸던 탓에 솔직히 그만큼의 울림은 아니었다. 그러나 여운이 오래가는 영화인건 확실하다. 학교폭력 같은 영화를 다루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속에서도 또 다른 말을 전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을 많이 하게되는 영화였다. 친구관계에 지치고 복잡한 학교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꼭 봤으면 하는 영화다.

김현도(진주고2)기자

사실 영화 제목 자체도 처음 들어봤고 오래 전 영화라 생소했다. 그렇다 보니 큰 기



대감 없이 봤는데 생각외로 몰입도가 뛰어나 재밌게 관람했다. 주변배우 세 명의 연기가 너무 뛰어났다. 실제 상황처럼 느껴졌고 학교 이야기라 공감이 되는 부분도 많았던 것 같다. 특히 마지막 장면은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워서 울 뻔했다. 친구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서열을 잘 표현하고 있어서 남고에 다녔거나 지금 학생이라면 대부분 공감할 것 같은 영화였다.



●개봉: 2011.03.03 ●등급: 15세 관람가 ●장르: 드라마 ●국가: 한국 ●러닝타임: 117분 ●감독: 윤성현 ●출연: 이재훈(기태), 서준영(동윤), 박정민(최준) ●누적관객수: 25,774명

청불이지만 청소년이 봐야 할 영화 BEST?

바람

Wish, 2009 제작

'바람'은 주연 배우인 정우의 실화를 바탕으로 고등학생 청춘들의 방황과 가족애를 담은 영화다. 눈물, 향수를 자극하는 진솔한 이야기로 관객들의 감성을 자극하며 흥행 바람을 일으켰다. 특히, '중고등학교생들이 보면 좋을 영화' '학교 선생님과 함께 보면 좋겠다'는 관객들의 요청으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확대시사까지 이어지곤 했었다.

고등학생 남자들이 학교 안에서 일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현실적으로 표현해낸 영화<바람>. 연기력 덕분에 더 돋보인 스토리로 악육강식의 세계,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까지 모든 것이 현실적이었던 영화 <바람>.

그러나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서는 영화 <바람>(Wish)에 청소년관람불가 결정을 내렸다. 영등위는 '교복'을 문제 삼았다.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거나 대로에서 대처하는 장면, 욕설과 비속어가 반복적으로 나온다'며 '청소년이 관람하지 못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고등학생은 볼 수 없는 고교시절을 다룬 영화가 되고 말았다.



돈 크라이 마미

Don't Cry, Mommy, 2012 제작

또래 남학생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자살한 딸의 복수에 나서는 엄마의 이야기를 담았다. 한국영화 중 처음으로 미성년 성범죄 가해자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는데 유선, 유오성, 남보라, 유키스 등이 출연했다. 영화 '돈 크라이 마미'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딸을 잃게 된 엄마가 법을 대신해서 복수를 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작품.

성폭행 피해 여고생으로 분한 남보라는 제17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눈물을 흘려 화제를 모았다. 영화에서 그려낸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 가해자들을 직접 심판하려는 엄마의 처절한 복수는 사적 복수를 부추기는 현 세대를 비판한다. 적절한 예방책이나 처벌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미성년 성범죄 가해자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며 직접적인 문제제기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측은 이 같은 등급 분류에 대해 "자살, 살해 장면 등 폭력적인 부분을 구체적, 직접적으로 표현했고 욕설 및 비속어 표현 등 주제 및 내용, 선정성, 폭력성, 공포, 대사, 모방위험 등을 고려해 청소년 관람 불가로 판정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명왕성

Pluto, 2012 제작

'명왕성'은 입시지옥과 무한경쟁으로 아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대한민국 사회와 그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리는 작품이다. 한 사람명문고에서 벌어지는 살인 사건과 인질극을 다룬 영화다. 입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비윤리적인 방식도 마다하지 않는 학생들을 통해 대한민국 교육의 어두운 면과 비극을 담았다. 해외 영화제에서도 "십대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신선한 관점으로 표현했다"는 호평을 받은 작품. 문제는 베를린 영화제에서도 14세 이상 관람가로 초청된 이 영화가 정작 국내에서는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는 것.

전직 교사 출신으로 입선에서 현장을 체험했던 감독은 "영등위의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을 이해할 수 없다. '명왕성'은 베를린 영화제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제너레이션 14플러스(14세 이상 관람가) 부문에 초청돼 이곳에서 특별언급상을 수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독일이야 여타 다른 유럽국가의 청소년들보다 한국 십대들의 사고능력이나 수준이 더 낮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궁극하다. 영등위 위원들은 우리 아이들을 바보로 생각하는 것인가"라며 판정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한공주

Han Gong-ju, 2013 제작

'한공주'는 예기치 못한 사건을 겪은 고등학생 소녀가 상처를 치유하고 감내하고 극복해가는 과정을 담은 영화로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이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나 사려깊고 섬세한 연출방식을 감안하면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관람을 권장하고 싶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작품이라는 평가다.

이 영화를 연출한 이수진 감독도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함께 보면 좋은 영화인데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한공주는 성폭력을 다루고 있지만 충분히 청소년의 삶에 밀착해 있어서 공감대를 만들만한 영화"라며 "청소년을 너무 어린 이 취급하는게 아닌지, 청소년도 사고를 할 줄 아는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청소년관람불가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공주' 등급자료 조회를 보면 선정성과 폭력성, 모방위험은 높은 편이고, 공포와 약물, 대사(저속성 등), 주제는 다소 높음이다. 영상의 표현에 있어 폭력적인 부분은 자극적이며 거칠게 지속적으로 표현되고 있고, 그 외 선정성 및 모방위험 부분에서도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청소년이 관람하지 못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야간비행

Night Flight, 2014 제작

'야간비행'은 중학교 시절 절친했지만 고등학교에서 우등생과 일진으로 엇갈린 학창시절을 보내게 된 용주(곽시양 분)와 기웅(이재준 분)의 갈등과 이해를 그린 영화. 학교 폭력 문제와 왕따, 성소수자 문제 등 학교에서 벌어지는 학생들의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담았다.

선택취벽리의 소설에서 제목을 따온 <야간비행>은 교실을 배경으로 하는 심리 스릴러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크게 보면 성소수자인 소년인 자신의 성 정체성을 남 앞에 드러내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쿼터 성장영화이기도 하다. 그 안에 우정과 학교폭력, 혐오 등의 코드가 다양하게 들어 있다. 영화는 동네 어딘가에서 흔히 볼 수 있을 법한 십대들의 모습을 과장 없이 그리는데, 그래서 오히려 관객은 그들이 처해 있는 건조하고 냉혹한 현실을 고스란히 체험하게 된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영상, 선정적인 대사 및 모방위험' 등을 이유로 들어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내렸다.



버닝

BURNING, 2018 제작

유통회사 알바생 유아인이 어릴 적 동네 친구 전종서를 만나고 그녀에게 정체불명의 남자 스티븐 연을 소개 받으면서 벌어지는 비밀스런 고도 강렬한 이야기이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살아 온 세 젊은이들의 만남과 미스터리한 관계, 긴장감 있는 내용을 담은 영화 <버닝>

유아인은 '버닝' 제작발표회에서 "우리 청춘들의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그려낸 작품이다"라고 영화를 설명했다. 당시 유아인은 "버닝"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인데, 오히려 청소년들이 많이 관람해야 하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버닝"은 한국의 정서를 담고 있는 한국적 작품이다. 전 세계인들의 공감을 자아낼 시나리오만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버닝'은 남녀 성행위 장면과 흥기 살해 등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들이 자극적으로 묘사되었고, 살인과 방화 중동이라는 주제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라고 등급판정 이유를 밝혔다.



성관계 없는 성교육, 홍철없는 홍철팀

성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성교육이 문제다

성교육하면 학생들은 무엇을 떠올릴까? '생물시간 아닌가?' '정자, 난자 이야기지.' '똑같은 레퍼토리의 비디오' 한결 같은 대답일 것이다. 또 성교육 시간은 잡자는 시간쯤으로 인식하는 학생들도 많다. 대체 세상을 초단위로 바뀌어 가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성'은 금기의 대상이긴 할까?

우리나라의 학생들에 대한 성교육의 근본 문제는 무엇일까? 바로 성교육의 핵심인 구체적인 성관계에 대한 교육을 꺼려한다는 것이다. 성관계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시급하다. 물론 성관계 관련 교육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보통 대중이다. 정의를 알려주는 것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실효성이 의문이다. 성문제에서 가장 핵심인 성관계에 대해 접근을 막고 대체 무슨 교육이 되겠는가? 무슨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성교육 같지도 않은 성교육조차도 청소년 연간 경험률 78.6%다.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교육을 가장 하찮게 취급하고 있는 우리나라다. 제대로 된 성관계 관련 정보는 찾을 수 없다. 교과서에도 없고 성교육시간에도 없다. 교사의 재량에 따라 교육 내용도 천차만별이다. 보수적인 학교와 교사의 태도, 학부모의 민감한 입김, 학교에서 성교육은 성관계 없는 성교육이 된다. 성교육이 사라진다. 대한민국 학생들은 성관계를 독학으로 터득해야 하는 현실이다.

성관계 관련 교육은 중요하다. 성교육은 남녀간 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바람직한 관계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이다. 성관계가 빠진다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성교육은 무용지물이 된다. 성관계에 대한 무지는 포르노나 불법 촬영 영상같이 자극적인 영상으로 인한 오염된 정보를 맹신하도록 하고 성에 대한 비뚤어

진 시각과 오해를 낳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청소년 성관계 경험률은 2018년 중학생은 2.6%, 고등학생은 8.5%에 이른다. 또한 성관계 시작 평균연령은 남성 13.3세, 여성 14.4세로 그 연령대는 계속 낮아지고 있다. 과연 이들은 성관계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을까?

우리나라는 성교육 시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 의무화해야 한다. 교육 내용 역시도 콘돔 사용법에서부터 성관계 방법에 대한 것까지도 제대로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어떻게 해야 상대를 존중하고 함께 사랑할 수 있는지 가르쳐야 한다. 청소년 때, 아니 더 이전부터 성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잘못된 인식이 자리 잡히면 우리 사회에도 큰 문제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인에게도 불행한 일이기 때문이다.



인간에게서 성은 감춰야 하고 부끄러운 것이 아님에 분명하다. 또한 누구나 제대로 잘 알아야 하고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어쩌면 청소년들에게 가장 정확히 자세히 일상적으로 교육되어야 할 것이 바로 '성'이다. 분명한 것은 오늘의 우리 청소년들은 '성'에 대해 실질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언제까지 야동이나 야설에 우리 청소년들의 성교육을 맡겨 둘 것인지 조금은 답답하다. 성교육, 이제는 구체적이고 직설적이어야 한다. 제대로 정확하게 알려줘야 한다.

청소년에게 섹스가 문제가 아니다. 성교육이 문제일 뿐이다.

[필통편집국]

교내대회의 목적은 세특이잖아!

학교에서의 상은 입시를 위한 스펙이고 도구일 뿐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상을 받았을 것이다. 상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남들 앞에서 상을 받는 내 모습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대단하다고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를 오면서부터 상을 받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되어 버렸다. 뭔가 찝찝한 그 무엇, 나의 재능을 인정받기보다 대학 입시의 도구로 쓰인다는 것이다.

대학입시는 입학사정관제 도입 이후 수능 점수, 교과 성적으로 결정되던 과거에서 벗어나 학생 개인의 개성이나 잠재성, 노력을 중시하는 시대로 변화했다. 학생들은 이제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수상 실적, 진로 활동, 봉사 활동 등 다양한 이력을 통해 자신의 전공적합성과 잠재력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학생부 위주 전형(학생부 교과/종합 전형)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학교생활에 얼마나 충실하였는가가 입시의 키포인트가 되었다. 이런 변화된 정책은 학교 현장에서 일명 '스펙' 쌓기 용으로 이전보다 훨씬 많은 다양한 대회들을 개최하

고, 지나치게 많은 인원에게 상을 남발해 빈축을 사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수많은 교내대회가 열린다. 당연히 수많은 수상자가 만들어지고 그만큼의 상장들이 남발된다. 학교는 일 년에 수십개의 대회를 열고 학생들에게 상을 준다. 상의 본래의 의미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담임 교사는 교내대회가 있을 때 꼭 이런 말을 한다. "너네들이 원하는 대학을 가려면 1년에 상 하나 정도는 받아야 세특(세부능력 특기사항)에 쓸 거 있다." "이번에 OO 교내대회가 있으니 상 안 받은 친구들은 어떻게든 하나라도 받아 세특 쓸 수 있게 하자."

학교내 대회의 목적, 상의 목적이 오로지 입시고 세특이라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아는 너무나 객관적인 사실이 되어 있다. 상을 받아 자존감이 오르고 인정받음에 새로운 에너지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특의 공간을 채우기 위한 용도로 그저 상이 필요할 뿐이고 그것을

위해 상 받을 만큼 뛰든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 A고등학교의 B학생이 교내 양심글짓기 대회에서 자기가 생각한 양심의 정의, 양심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등의 내용으로 현실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글을 적었다. 그런데 담당 교사는 "이 대회는 이런 주제를 적으면 상을 받지 못한다.", "너의 주관적인 생각보다 정서적인 논리와 생각이 들어가야 상을 받지 않겠나.", "양심을 자기 생각만을 중심에 두고 글 자체를 비판적으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과연 학생이 잘못된 것인가? 교사의 지도가 옳은 것인가?

학생은 학교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사회에 나가 그대로 실천한다. '상'은 공정한 평가의 산물이다. 그렇게 배웠고 또 그래야 '상'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



다. 학교에서의 '상'은 더욱 그러해야 할까? 마땅하다. 그런데 입시라는 블랙홀같은 어마어마한 목표 때문에 '상'의 본래의 가치도 사라지고 '상'을 위한 평가도 그 공정함을 잃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다. 노력의 결과와 공정한 평가에 따른 '상'이 아니라 '상'이 필요하니 그 '상'이 요구하는 것에 맞추어야 하는 현실을 거부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어렸을 땐 받기만 해도 좋았던 '상'이 지금은 대학 입시의 도구가 된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필통편집국]

시험 문제 잦은 수정! 책임은 NO!

출제교사의 반복되는 시험문제 오류, 불이익은 학생들만의 몫

학생들에게 시험은 피할 수도 없고 피할 길도 없는 숙명 같은 존재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험으로 진로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학교생활중 하나다. 고등학생은 한 학기에 4번 시험을 친다. 2번은 내신에 포함되는 시험이고, 2번은 수능을 준비하는 모의고사 시험이다. 그런데 학생들은 내신시험을 칠 때면 항상 곤욕을 치른다. 시험지의 오타는 기본이고 문제 자체가 잘못 나오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재시험을 치르는 경우도 있다.

시험 시간 중 문제 수정으로 교사들의 잦은 공지를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방송으로 또는 직접 교실에 찾아와 직접 문제를 수정한다. 고학년일 수록 시험에 있어서 1분 1초가 정말 귀한 시간이다. 학생들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해 늘 준비한다. 또 학생들 간 차이는 있지만 스트레스를 적잖이 받는다. 교과서, 부교재, 보충 학습 등으로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보낸다. 안타깝지만 이 모든 것이 오직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런데 시험 당일 주변

환경에 의해 시험 문제를 다 풀지 못하거나 집중을 하지 못해 문제를 틀리게 된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을 것이다.

진주 J고는 평균적으로 한 시험당 4번 정도의 문제 수정이 있다. 대부분의 다른 학교들도 흔한 풍경이라고 한다. 애초에 문제를 잘못 낸 경우가 허다했고 객관적이지 못한 문제에 대한 추가적 해설을 위해 교실 문을 거칠게 열고서는 '문제 푸는 것을 중단하고 O.O문제를 보십시오.' 하며 큰 소리로 문제 수정 공지를 한다.

학생들은 늘 당황스럽다. 늘상 있는 일이지만 적응하기란 쉽지 않다. 시험지를 보며 문제를 풀던 흐름은 모두 끊긴다. 문제의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또한 시간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추가적인 시간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에 시험 시간 손실은 학생 몫이 된다. 어쩌다 한 번의 문제 수정은 있을 수 있지만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수 차례 문제 수정을

반복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행위다.

출제된 문제를 확인한 후 인쇄를 했었지만 늘 있는 문제 수정, 문제의 답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재시험을 치는 경우들은 명백히 출제자 잘못이고 그 책임 또한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도 불이익은 아무 힘 없는 학생들에게만 주어진다. 왜 잘못을 저지르고 책임 지지 않는지 학생들은 묻는다. 하지만 답변은 없고 똑같이 잘못을 반복한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다. 시험이 끝난 후 문제의 오류로 인해 답이 바뀌는 경우다. 시험시간 문제를 푼 학생은 답이 틀리고 오히려 찍어서 얻어 걸려 문제를 맞게 되는 학생들이 생긴다는 것이다. 공부를 안 하고 대충 찍은 학생과 공부를 해서 문제를 푼 학생이 출제 문제의 오류로 인해 시험 결과가 뒤 바뀐다면 이 일



마나 불공평한 것인가? 특히 문제 하나에 등급이 달라지는 치열한 입시경쟁에 힘입어하는 학생들에게 내신 시험의 결과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

시험 문제를 내는 출제자들의 노고도 분명히 인정해야 하지만 시험때마다 원하는 결과를 위해 한 달 또는 2주를 밤새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다. 공정하게, 시험지에 문제가 없도록 학교에서는 철저히 관리하고 교사들은 오타 하나도 놓치지 않는 문제 없는 시험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필통편집국]

[특집-JOB을 잡아라] 사라질 직업, 미래의 직업

중고생 희망직업 BEST5

그렇다면 미래에 사라질 직업은 무엇인가?

중고생 희망직업 부동의 1위는 교사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실시한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초등학교들은 지난해에 이어 운동선수를 희망직업 1위(11.6%)로 꼽았다. 교사가 6.9%로 뒤를 이었고 '유튜버'로 대표되는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초등학교들도 5.7%를 차지해 의사(5.6%)보다 다소 많았다. 이어 조리사(요리사)가 4.1%로 5위를 차지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교사를 가장 희망하는 직업으로 꼽았다. 교사는 교육부와 직능원이 진로교육 현황조사를 처음 실시한 2007년부터 올해까지 중·고생 희망직업 부동의 1위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공들은 이공계 계통의 의대, 치대, 약대, 컴퓨터관

련 공대이고, 문과계통은 법학, 경영, 경제, 국제학, 심리학, 신방학 등이다. 인기 직업군으로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방송PD, 아나운서, 심리상담사, 교수, 국제학전문가, 나아가 교사, 공무원, 대기업사원 정도이다.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전공은 특기자전형, 수시, 정시 등 어떤 전형이든간에 상위권 대학의 경우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스펙쌓기에 여념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직종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학 준비기간, 대학 재학기간, 직업준비, 체험기간을 포함하면 10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아이러니 하게도 이런 직업들이 과연 미래사회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10년 후, 20년 후 미래사회에서 그 직업은 어떤 모습일지 고민하는 이들은 거의 없다.



과거 직업이 사라지고 있다 미래에 유망한 직업은?

최근 4차 산업 혁명으로 시기술의 급증 및 전자기계의 발전으로 공간적, 시간적 제약이 사라지고 있다. 이 영향으로 많은 직업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지난 5월31일 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제품의 생산 중단과 디지털화 등 기술 발전에 따라 소멸된 직업 18개는 사전에서 빠졌다. 플라스마영상패널관련 생산직, 영화(필름)자막제작원, 필름색보정기사, 테니스라켓 제작 관련 직업은 더 이상 종사자가 없어 한국직업사전에서 삭제됐다. 이에 많은 학생들은 과거와 다르게 없어지지 않는 직업을 찾아야 하는 추가적인 고민이 생긴 것이다. 부모세대들이 겪지 못한 일이라 조언을 구할 곳도 없는 것이다.

미국의 재무관리 전문 미디어 그룹인 키플링어(Kiplinger.com)는 미국 내 미래 유망직업 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10년 동안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기술이 직업의 생성과 쇠퇴, 그리고 기존 직업의 직무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미래 직업세계에서는 디지털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는 역량이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래에 사라질 직업

- | | |
|---------------|---------------|
| 1위 시계 수리기사 | 11위 자동차 전기 기사 |
| 2위 조립식 주택건설업자 | 12위 조립기술자 |
| 3위 섬유기계 기사 | 13위 플로어 매김사 |
| 4위 직물 수선기사 | 14위 기계 기사 |
| 5위 신발기계 기사 | 15위 삼림 감시원 |
| 6위 영상 기사 | 16위 꽃 디자이너 |
| 7위 사진 현상기사 | 17위 아나운서 |
| 8위 도배공 | 18위 도박사 |
| 9위 법률공 | 19위 보조 약사 |
| 10위 전화 교환수 | 20위 시신 방부처리기사 |

미래의 유망직업

- | | |
|----------------|---------------|
| 1위 앱 개발자 | 11위 치과 위생사 |
| 2위 임상 간호사 | 12위 관리자 |
| 3위 건강 서비스 관리자 | 13위 경영 연구 분석가 |
| 4위 재무관리사 | 14위 간호사 |
| 5위 시장조사 분석가 | 15위 언어 번역자 |
| 6위 컴퓨터 시스템 관리자 | 16위 초음파 검사기사 |
| 7위 정보 보안 전문가 | 17위 물리치료보조사 |
| 8위 보조의사 | 18위 호출요법사 |
| 9위 의사 | 19위 서비스 영업 사원 |
| 10위 물리치료사 | 20위 통계전문가 |

미래학자 토마스메레이의 예언

2030년까지 일자리 절반이 사라진다.

다가 올 미래산업이 새로운 직업을 창출할 것



직업은 유기체와 같다. 직업은 탄생해서 성장하다 수요가 없어지면 쇠퇴하며 사라지는 과정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체와 같다는 얘기다.

"2030년까지 전 세계 일자리 40억 개 중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구글이 선정한 최고의 미래학자인 토마스 프레이 다빈치연구소장의 말이다. 현재 일자리의 절반이 사라지고 80%이상의 직업이 없어지거나 진화한다고 한다. 무인자동차시대의 서막이 이미 열렸고 드론의 상용화가 눈앞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2030년 초등학교들이 직업을 구해야 하는 시기가 오면 현존하는 직업의 47%가 사라진다는 것이 토마스프레이의 이야기다.

그는 미래가 암울하다는 말이 아니라고 한다.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20억 명

의 실업자가 생긴다는 얘기도 아니라 한다. 과거보다 빠른 속도로 일자리가 대체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토마스메레이는 기존의 일자리가 없어지지만 일거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 말한다. 차세대 일자리는 미래 산업에 있다는 것이다.

그는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결국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장악할 것이라는 것.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기술이 머지않은 미래에 수많은 직업을 창출한다는 얘기다. 그리고 3D프린팅 기술, 드론, 무인자동차 등의 미래산업이 미래의 유망 직업을 만들 것을 예측하고 있다. 조금은 먼 훗날의 얘기 같지만 이미 그 미래는 가까이 다가와 있는지도 모른다.

"2030년까지 전 세계 일자리 40억 개 중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차세대 일자리는 미래산업에 있다



소프트웨어 기술 관련 직업

1. 데이터 폐기물 관리자 (데이터 저장소에서 불필요한 데이터를 제거하는 일을 한다. 한정된 저장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 2. 데이터 인터페이스 전문가 3. 컴퓨터 개성 디자이너 (기계 같은 컴퓨터 목소리가 지루하게 들린다면 컴퓨터 개성 디자이너가 역할을 할 타이밍) 4. 데이터 인질 전문가 (개인의 데이터를 노리고 자신의 목적을 수행하려는 범죄에 맞서는 직업도 인기를 끌 직업) 5. 개인정보 보호 관리자 6. 데이터 모델러 등 많은 직업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직업들은 준비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일이다.

3D프린팅 기술 관련 미래직업

1. 3D 프린터 소재 전문가 2. 3D 프린터 비용 산정 전문가 3. 3D 프린터 잉크 개발자 4. 3D 프린팅 패션 디자이너 5. 3D 음식 프린터 요리사 6. 신체 장기 에이전트 7. 3D 비주얼 상상가

드론의 시대 미래 직업

1. 드론 분류 전문가 2. 드론 조종인증 전문가 3. 환경오염 최소화 전문가 4. 악영향 최소화 전문가 5. 드론 표준 전문가 6. 드론 도킹 설계자 및 엔지니어 7. 자동차 엔지니어까지 예상되는 직업이 아주 다양하다. 특히 드론의 종류와 성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법률에 능통한 분류 전문가 또 드론 면허를 인증해주는 전문가, GPS에 따라 자동으로 움직이는 드론을 제어하는 자동차 엔지니어들은 촉망받는 미래 직업으로 꼽힌다.

무인자동차 산업 일자리

1. 교통모니터링 시스템 플래너, 디자이너 운영자 2. 자동 교통 건축가 및 엔지니어 3. 무인 시승 체험 디자이너 4. 무인 운영 시스템 엔지니어 5. 응급상황처리 대원 6. 충격 최소화 전문가 7. 교통 수요 전문가 등이 새롭게 등장할 전망이다.

그래, 학생다움이 대체 뭔가?

불분명한 통제와 제한보다 학생들의 인권과 권리가 우선

학교를 다니는, 또는 다녀본 학생이라면 한 번쯤 이 말을 들어 보았을 것이다. "학생답게" 또는 "학생의 신분에 맞게" 모두를 대중 느낌은 오지만 정작 이 말뜻을 아는 사람을 거의 없을 것이다. 대체 이 문구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개인적으로 학생다움은 우리에게 학생으로써 FM의 삶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부하는 기본 베이스, 학교에서 요구하는 바를 잘 지키고 학교와 타협하며 조종한 모범생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싶다. 정작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물어보았다. 대개 비슷했다. 학생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식어, 부정적이고 거부감을 나타내는 친구들도 많았다.

물론 '학생다움'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 듯 하다.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학생다움이라는

단어가 학생 개인의 특성을 죽인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교칙으로 제한하는 두발, 교복 등으로 인해 일부 학생들은 자신의 개성을 뽑 내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시대착오적이다. '머리가 길면 공부를 안 한다.', '교복을 입지 않으면 학생답지 않다.' 등은 너무나 구시대적 발상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1항에는 분명히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적혀 있다. 청소년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청소년 역시 그들에게 신체의 자유가 있음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다. 학생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학교측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진 규칙에 따라 무조건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모습을 강요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또 대한민국 헌법 제11조1항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



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법과 정의를 배운다. 교과서에선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면서 그 학교란 곳에서 오로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동의할 수 없는 다양한 차별이 이루어진다면 그 또한 옳지 않다.

학생이니까, 학교니까 무조건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만이 옳은 방법은 아닐 것이다. 물론 학교라는 특수한 환경, 공동체공간이니까 규제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이제는 학생들에게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자신이 만든 룰을 스스로 지키며 룰을 어겼을 때에도 함께 합의한 처벌을 주는 그런 학교가 되었으면 어떨까? 그것이 훨씬 더 교

육적이고 민주주의 사회에 맞는 방법이 아닐까 한다. 처음엔 서툴지 모르지만 학생들을 끝까지 믿어주는 환경이 만들어 지길 기대한다.

학생들도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목표, 가치관 모두가 다르다. 똑 같은 사람은 없다. 그 다양함을 한마디 말로 획일화 시킨다면 그 것을 좋게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학생 다움'이라는 불분명한 말로써의 학생들을 통제와 제한하기 보다 이제는 모두가 납득 할만한 올바른 가치가 무엇일지를 고민해야 할 때다.

[필통편집국]

선생님 이건 안 배웠는데요?

보충수업과 학원수업을 전제로 시험을 출제하면 공정한 평가 아니다

대한민국 학생이라면 피해 갈 수 없는 것이 시험이다. 학생들에게 시험은 단순히 자신이 공부한 것을 평가 받고 교사들은 더 나은 교육을 위해 그동안의 수업을 점검하는 행사 차원을 넘어 선다. 그것은 내신 성적이 대학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고 그런 이유로 시험기간이면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 하나 하나, 점수 1점에 예민해 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에서 늘 정기적으로 학생의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해 시험을 친다. 대입 수시전형은 이러한 시험 점수를 통해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시험이 대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학생들은 시험에 많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문제를 틀리면 자연스레 스트레스도 받게 된다.

그럴 경우 짜증이 나서 시험을 어렵게 낸 교사를 욕하기는 해도 막상 '왜 이리 어렵게 냈

어요?' 외에는 딱히 할 말이 없다. 언제나 교사들은 배운 범위에서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교 수업시간에 배우지 않았거나, 또한 담당교사가 가르친 내용이 아닌 내용이 시험에 출제 된다면 어떨까?

G고 2학년 1차고사에 배운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수준의 영어문법이 출제되었다. 시험 후 이의제기 기간에 담당교사 또한 수업 시간에 따로 배우지는 않은 어려운 문법이라고 인정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 8조 3항 1호에 보면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법은 경제적 여건의 차이로 시험성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교과서와 수업자료는 수업시간에 모두 배운 것들이고 학생 스스로 공부 가능하다. 하지만 보충교재나 모의고사는 다르다. 보충수업을 신청하지 않거나 모의고사 수업을 따로 하지 않는 학생은 그 내용을 모르거나 혼자 따로 공부를 하기 힘들다. 더구나 이런 시험에서는 학원을 다니는 학생과 혼자 공부하는 학생 사이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은 학원에서 모의고사 풀이는 물론 변형문제나 예상 문제, 타 학교의 기출 문제 등을 이용하여 공부를 한다. 하지만 학원을 다니지 않고 혼자 공부하는 학생의 경우엔 모의고사 해설지에만 의지 할 수 밖에 없다. 모의고사가 학교 내신 시험 범위에 포함 될 때는 당연히 변형문제가 나오기 마련이다. 이것은 학교 수업만으로는 공정한 경쟁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명백한 기회의 불평등이 아닐까?

시험은 수업 성취도를 측정하는 수단이다. 공부를 하지 않아 그만큼의 성적을 못 얻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학교 내신 시험이 불공정한 룰로 인해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면 그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모든 학생들이 보충수업을 반드시 들어야 하고 학원을 다녀야 한다는 전제 위에 시험을 출제하고 학생들을 평가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음은 분명해 보인다.

[필통편집국]

우리는 성적 노출을 원하지 않아요

성적은 중요하고 내밀한 개인정보, 공개 권한은 오직 학생 본인에게

보통의 학생들은 1년에 4번, 한 학기에 2번은 필수적으로 시험을 치른다. 시험이 끝난 날, 누군가는 출가분한 마음으로, 또 누군가는 망친 시험지를 들고 착잡한 마음으로 학교를 나선다. 학생들에게 시험은 시대를 막론하고 중요한 행사가 아닐 수 없다. 훗날 학창시절을 추억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도 바로 이 '시험일' 것이다. 시험은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공부의 수준을 진단할 수 있게 하고, 원하는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데 도움을 준다.

시험은 이렇게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는 항상 기본적인 스트레스를 준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시험 스트레스의 복병이 있다. 학교에서는 시험이 끝나면 교사들이 그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는다. 학생들에게 성적 결과가 잘못된 것은 없는지 점검하고 틀린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 바로 이러한 성적 검사 때 많은 학생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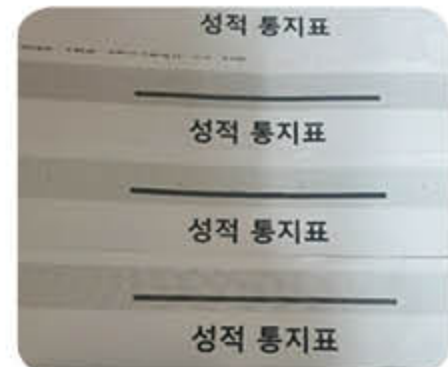
이런 성적 검사는 교사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교사가 직접 하기도 하고 반장이 검사를 대신하기도 한다. 성적 검사를 하면서 반 학생들의 성적을 무작위로 주며 사인을 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남들에게 공개하기 싫은 자신 성적을 친구들이 본다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물론 다른 친구들의 성적을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나의 성적을 누가 보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은 그 자체로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준다.

성적은 학생에게는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다. 성적은 부모님에게도 보여주지 꺼려할 정도의 자극적인 개인정보다. 누군가의 개인정보를 아무 동의없이 공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권한을 학교나 교사가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 권한을 부여한 것도 아니다. 분명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러한 의도치 않은 성적 공개에 큰 거부감을 가지

고 있다. 비교되는 점수에 수치심은 물론 상대적 박탈감도 상당하다.

어른들이나 교사들은 큰 문제의식 없는지 모른다. 어이없게도 성적공개가 학생들에게 자극이 되고 오히려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말을 한다. 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든 그렇지 못한 학생이든 자신의 성적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는 학생은 거의 없다. 성적은 분명 해당 학생의 것이다. 중요하고 아주 내밀한 개인정보다. 그것의 관리는 신중해야 하고 공개 역시 오직 학생 본인에게만 권한이 있다.

성적은 학생들에게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이고 누구에게는 콤플렉스일 수도 있고 고통이 될 수도 있다. 성적이 공개되었을 때, 학생들이 받아야 할 열등감과 스트레스는 고등학교 시절 동안 꼬리표처럼 그를 따라다닐 것이다. 또한 학생들 사이의 서열화를 유도함으로써 경쟁



심리를 과도하게 자극하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학생들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과연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의사를 한 번이라도 물어 보았을까?

더구나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요즘, 정작 학교는 학생들의 일상속에서 차별의식을 심어주는 것에 무감각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앞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시험성과 순위 등을 공개하는 것은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한다.

[필통편집국]

저도 급식먹고 싶어요

학교에서부터 식소수자 학생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

학교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반박불가 급식시간일 것이다. 그런데 누구나 행복할 시간일 것 같은 이 시간이 힘들고 고통스런 학생이 있다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인 학교에서 학생들이 먹는 급식을 보아라. 주로 고기류, 밀가루가 들어간 음식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기와 밀가루 음식을 선호한다. 그런 음식이 많이 들어간 날은 '맛있는 날' 이라고 좋아하고, 그렇지 않은 날은 '맛없는 날' 이라고 하며 급식을 많이 남기거나 먹지 않고 다른 음식으로 때우는 경우가 허다하다.

과연 누구에게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맛있는 날' 일까? 하지만 채식주의자나 여러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들이라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진다. '맛있는 날' 은 그들에게

는 맛있는 날이고, '맛없는 날' 은 그들에게 맛있는 날이거나 괜찮은 날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채식주의자는 고기가 나오는 날이면 급식을 잘 먹지 않고 다른 음식을 먹는다. 어패류, 과일, 유제품, 밀가루, 견과류 등 음식알레르기가 있는 학생도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음식이 나오는 날이면 급식을 먹기 힘들어 한다.

'x' 고등학교 a양은 "저는 고기를 먹지 않는데 저희 학교에 주로 고기음식이 나와서 힘들어요. 그래서 매점에서 라면을 먹거나 집에서 도시락을 싸와 먹어요." 라고 말했다. 유제품 알레르기가 있는 b양은 "저는 유제품 알레르기가 심해서 먹으면 바로 두드러기가 일어나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우유급식을 하지 않았고, 급식에 유제품이 나오면 힘들죠." 라고 했다.

이런 조금은 다른 사람들, 우리는 이들을 식소수자라 말한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의 급식 시스템은 여러 다양한 음식이 제공되고 자신의 취향에 맞게 스스로 취사 선택해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 정해져 있는 식단대로 일괄적 배식을 해주는 방식이다.

우리는 과연 주위의 소수자들에게 대한 인식과 배려가 충분한지 자주 돌아봐야 한다. 학교에도 분명 이러한 식소수자들이 존재한다. 식생활에서도 소수자가 존재할 수 있음을 함께 생각하는 학생들이 먼저 인식했으면 한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소수자들에게 '왜 안 먹어? 한번만 먹어봐' 하며 그들의 상황을 너무도 쉽게 무시하고 간과하고 있는지 모른다. 오히려 그들이 눈치를 받고 강요를 당하기 일쑤다. 이들도 먹을 권리가 있다. 우리는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식생활에도 소수자



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해해야 한다. 이들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 것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다. 그들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 제도와 시스템 변화로 이루어 질 수 있다. 학교에서 먼저 식소수자 학생들을 위한 크고 작은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필통편집국]

누구인가, 누가 내 쉬는 시간을 가져갔는가?

교과교실제,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교과교실제, 한번쯤 들어 보았을 것이다. '교과교실제'란, 각 교과별 특성에 맞춘 전용 교실을 설치해 교과별로 학습환경을 꾸려 학생 맞춤형 교육과 참여형 활동수업을 활성화하는 제도이다. 2009년부터 교육 현장에 도입돼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학생은 개인 사물함에 짐을 두고 시간표에 따라 이동하며 수업을 받는다. 교과 교사가 각 교실에 있기 때문에 기존의 학교급실제보다 전문성이 확대되며 교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수업이 가능해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이다.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제도는 결국 문제점들만 쌓여 갈 뿐이다. 실제 학교에서의 교육 주체인 학생들이 생각하는 교과교실제는 어떠한가?

중, 고등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하지만 쉬는 시간 10분 안에 매번 휴 배이스에서 교과서를 챙겨 각 교실로 이동하기엔 그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한마디로 쉬는 시간이 사라졌다. 쉬는 시간은 계속되는 수업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고 다음 공부를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또는 잠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달콤한 꿀잠을 선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교과교실제로 인해 화장실을 가거나 선생님의 심부름을 가기만 해도 수업에 지각하기 일쑤다. 심지어 몇몇 교사들은 이유를 들지도 않고 늦은 학생들을 무단 지각(비인정결) 처리를 하기도 한다. 학생들은 쉬는 시간 10분을 교과교실제에 빼앗긴 꼴이다.

현재의 교과교실제는 유명무실이나 다름없다. 매 시간마다 교실이 바뀌기는 하지만, 교실 내부 구성은 똑같다. 수업 방식 역시 교과

교실제가 시행되기 이전과 별다를 바가 없다. 학생들의 반응 역시 싸늘하다. 쉬는 시간을 온전히 활용할 수 없고, 매 시간마다 이동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업 내용은 변함이 없고, 무엇보다도 한 교실을 여러 학년이 나눠서 사용하게 되니 분실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애초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우열반 형식으로 편법 운영되는 학교도 있고, 교사들의 준비가 미흡한 점 등,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학교는 넓고, 교실은 열고, 쉬는 시간은 전과 다름없으니 동선이 한 번 꼬이기 시작하면 교실을 이동하고 책을 챙기는 데 쉬는 시간을 모두 허비하게 된다.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지 않으니 학생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교과교실제를 시행하려면 제대로 된 운영체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먼저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을 10분에서 15~20분으로 늘리고 점심시간, 쉬는 시간에 체육관 사용을 허가하는 등의 학생들의 휴식공간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도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물쇠를 제공하고 CCTV를 설치하는 등의 기본적인 학생들의 요구부터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필통편집국]

학교내 무상으로 생리대 비치를 의무화해야...

학생들의 생리대 요구는 인간의 기본권, 예산 마련 시급하다

여학생들은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한다. 생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발발한다. 학생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갑자기 생리하는 학생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생리 주기가 일정하지 않아 자신의 주기를 잘 모를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생리대를 소지하지 않거나 깜빡 잊고 다니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가 갑자기 생리를 하게 되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엔 난감할 수 밖에 없다. 어쩔 수 없이 생리대를 빌리게 된다. 여학교에서는 그다지 쟁쟁한 일이 아니지만 남녀공학에선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학교 보건실에 항상 생리대가 비치되어 있다면 아마도 이런 일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보건실에 온열 팩과 진통제는 항상 준비되어 있지만 정작 제일 필요한 생리대는 비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많다. 비치되어 있는 학교도 있지만 무상이 아닌 경우도 있고 무상이더라도

몇 번 반복되면 눈치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매달 어김없이 생리통에 시달리고 귀찮게 생리대를 착용해야 한다. 하루 이틀에 끝내지 않고 차이가 있지만 일주일 이상 고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상 생활의 불편도 불편이지만 통증과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뒤따른다. 더구나 성인이 되어 직장생활과 사회 생활속에서 받게 되는 어려움 또한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성의 생리는 인류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성이 임신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인류가 유지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일반적으로 동물들은 생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왜냐면 지속적인 종족번식을 위해 생리할 기회를 주지 않고 암컷은 임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류는 자신들의 가족제도와 사회제도를 만들면서 여성

들이 생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다. 즉, 우리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시스템이 여성의 생리를 초래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생리는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고 보호 받아야 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

세금은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 학교나 교육청에서 생리대 예산을 마련하는 것만큼 시급한 일도 없을 듯하다. 물론 당장 모든 학생들에게 필요한 생리대를 100% 지급해 줄 순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학교 보건실에서 눈치 안 보고 생리대를 요구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보건실뿐 아니라 학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비치하면 될 것이다. 물론 처음엔 학생들의 마구잡이 이용이나 사재기식 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합리적인 지급 방식과 학생



들의 인식 개선에 따라 좋은 제도로서 자리 잡히게 될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올 해부터 여학생이 재학하는 모든 학교에 생리대를 무상으로 화장실, 각 교실에 비치한다고 한다. 불가능한 제도가 아니라 충분히 실현가능한 제도임을 보여준다. 우리 경남도 하루 빨리 이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한다. 아니 가장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필통편집국]



[독자 토론방] 병역특례 어떻게 볼 것인가?

손흥민은 되고 BTS는 안된다?

공정과 형평성을 따진다면 병역특례 자체가 원칙에 어긋난다

병역특례에 공정과 형평의 원칙을 대입하다 보면 의문에 의문이 꼬리를 문다. 'BTS를 특례 대상에 포함 시키면 공정해질까? 왜 스포츠·예술인의 국위 선양만 특혜의 대상이 돼야 하는 걸까?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젊은이들에게 특례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는 것인가? 국위를 선양했다고 병역을 면제 받는 것은 과연 공정의 원칙에 맞는지 한 걸까?' 등등.

징병제 국가에서 한국 남자는 헌법 제39조와 법률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 한창 배우거나 사회활동을 시작할 시기에 18개월(육군 현역 기준)의 의무 복무를 강제하는 만큼 공정성이 생명이다.

한데 공정과 형평성만 따진다면 병역특례 자체가 원칙에 어긋난다. '특례'라는 단어의 뜻이 이미 특혜라는 뜻을 함유하고 있으니 말이다. 병역특례를 허용하는 병역법이 공정성을 결여한다고도 볼 수 있다. 특이한 점은 병역법을 아무리 뒤져봐도 '병역특례'란 단어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1973년 병역특례규제법이 처음 도입돼 시행되다가 1990년대에 폐지됐고, 관련 내용은 병역법 제33조와 하위 대통령령에 신설된 새 조항에 담겼다. 이 조항엔 국민적 거부감을 고려해선지 '특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특례란 단어는 빠졌지만, 그 내용은 법령의 여러 조항에 흩어져 살아

있다. 요지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가를 가진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시켜 4주 군사소집훈련만 마치면 병역을 면제해 주도록 한 것이다. 2년 2개월간의 의무복무 기간을 두고 봉사활동을 544시간 하는 조항을 뒀지만, 일부 수혜자들은 그마저도 이행하지 않고 서류 조작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한다.

징병제 국가 가운데 국위선양을 했다고 병역면제 포상을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13개 징병제 국가 중에선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종교나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는 상당수 국가가 인정하면서도 스포츠·예술인에게 '포상 개념'의 병역면제 혜택을 주지는 않는다. 대신 군입대 시기를 조절해 자기 분야의 전성기를 피해 군복무를 하게 하거나 대체복무를 적절히 활용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운용한다.

이유다.

병역특례제는 우리나라가 최빈국으로 국제적 위상이 초라했던 1970년대 초 나라를 빛낸 스포츠 스타들을 예우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정성과 별개로 이미 도입 취지의 시효가 다한 셈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세계 어디를 가도 모르는 이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국위선양 명목으로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 지적이 나오는

징병제가 살아 있는 한 병역특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사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BTS 같은 세계적 스타가 나올 때마다 공정성 논란이 일 게 뻔하다. 국민 여론에 떠밀려 잣대를 늘였다 줄였다 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이 같은 소모적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도 포상 개념의 병역특례제는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 그것이 곧 공정성 아닌가.

Q. 세계적인 스타인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어떻게 생각해?

[필통편집국]



나는 방탄소년단의 군면제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찬성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이유는 방탄소년단이 국위선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위선양에 기여하였다는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운동선수는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딸 경우 면제를 해준다는 확실한 기준이 있지만 문화·예술분야의 트로피 시상식이 국제대회도 아니고 경제기여를 하였다는 정도에도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았을 때 기준이 애매한 지금 이 시국에는 방탄소년단의 군면제를 해주는 게 어렵게 될 것입니다.

▶강우배(진주고등학교 1학년)



단지 유명하다는 이유로, 군 입대 면제를 받는다면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렇게 되면 불공평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남성의 의무 사항이다. 현실이 된다면 일반 국민들의 박탈감도 엄청나게 클 것이다. 국방의 의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고은(진양고등학교 1학년)



현재 방탄소년단은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중이며, 급기야 '21세기의 비틀즈'라는 말까지 심심찮게 듣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유명하다고 해도 대한민국 남성이 책임져야 하는 병역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될까? 내 생각은 반대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빌보드 관련에서 병역 특례가 없다. 정확한 기준으로 병역 특례를 어떻게 줘야 할 지도 막막하다. 그리고 현재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례를 주게 되면 싸이, 빅뱅 같이 방탄소년단 보다 먼저 돈 가수나 그 뒤로 뜰 수도 있는 가수들에 대한 형평성이 어긋난다. 이러한 군면제 관련에서 마찰을 일으키는 것보다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군대가 발목 잡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우선인 것 같다.

▶하서준(진주고등학교 1학년)



방탄소년단은 아이돌이지 국가대표 운동선수가 아니고 방탄소년단에게만 군면제에 혜택이 주어진다면 명확한 면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른 연예인이나 국제적으로 인기 있는 사람들도 '왜 나는 안 주고 재들은 줘요?'라는 문제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

▶강수성(진주고등학교 1학년)



저는 세계적인 인기를 가진 월드스타인 방탄소년단의 군면제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인기는 수년간 노력한 결과인데, 지금 군 복무를 하게 된다면 나중에 다시 복귀를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군 복무를 하지 않고 계속 연예계 활동을 이어 나가 우리나라(K-POP)의 위상을 더 높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원(대야고등학교 1학년)



방탄소년단이 해외로 진출하여 국가 위상을 높이고 있고 벌어들이는 수익도 엄청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군면제를 받는 것은 불공평할 수 있다. 따라서 국방의 의무를 지니는 대신 군복무 중에서도 한류와 한국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보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서영(진양고등학교 1학년)

병역기피 MC몽의 복귀는 어떻게 생각해?



가수 MC몽 씨가 자숙 후 9년 만에 정규앨범으로 돌아왔지만 이를 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특히 현재 20대 군필자들에게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다. 실제 병역기피자라는 꼬리표에도 MC몽은 신곡 '인기'와 '샤넬' 등을 선보여 주간 음원차트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그야말로 복귀와 동시에 '인기'와 '중요'를 같이 떠안고 있는 셈이다.



MC몽의 군 입대 거부는 옳지 않은 것 같다. 누구나 군대를 간다는 것이 결코 쉽고 간단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군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법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것처럼 이것 또한 법이기에 인위적으로 자신의 아탈을 뽑아 법을 어기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다시 복귀한다는 것은 그 자신만 상관없다면 자유라고 생각한다. 앨범을 내는 것에 법을 어긴 행위를 하지 않았으니 복귀에 대해 찬성한다.

▶김수연(진양고1학년)



MC몽 복귀에 대한 생각은 반대다. 일단 대한민국의 건장한 남성이라면 군대를 꼭 가야하는 데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서 고의로 어금니를 뽑았던 것은 옳지 않은 행위다. 이 때문에 사람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더 비난이 쏟아질 것 같다. 이러한 이유로 복귀에 대해 반대한다.

▶양성원(진주고등학교 1학년)



저는 옛날부터 MC몽의 노래를 들으며 자랐고 MC몽의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MC몽이라는 사람을 가수로서 그리고 어릴 때는 예능인으로서 정말 좋아했는데 어느 날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발치를 하여 면제를 받은 사건이 논란이 되었고 최근까지 지속 기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옳지 못 한 행동이므로 자숙의 기간을 가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MC몽의 새로운 노래를 듣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MC몽이 컴백하였고 노래들이 인기차트에 당당히 올라왔습니다. 노래는 여전히 좋았습니다. 사실 과거에 좋지 못한 사건이 있었지만 나는 앞으로 더 좋은 노래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MC몽의 복귀를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김태능(진주고등학교 1학년)



MC몽이 복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MC몽이 치아를 뽑아서 병역기피를 한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본다. 군대에 가기 싫어서 치아를 9개 이상 뽑고 병역 브로커를 고용해 편을 써서 7번이나 군 입대를 미루는 '나'이 제한이 있어서 군대에 가지 못했다. '고 거짓말까지 한 MC몽의 행동이 잘못되었다. 이러한 행동을 하였는데 복귀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일까? 나는 반대이다.

▶정예찬(대야고등학교 1학년)



MC몽 복귀에 반대합니다. 일단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발치를 하고 누구나 가야 할 군대를 거부했다는 것에 대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를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인인 MC몽은 그것을 거부하고 이빨을 몽땅 뽑았습니다. 이와 같이 고의적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은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더욱 더 병역기피자는 늘어날 것이고, 군대 간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불공평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를 차별 없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가야 할 군대를 가지 않은 MC몽이 대중을 상대로 돈을 벌이를 하는 '복귀' 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분발하자 씨몽아. ▶오혜균(진주고등학교 1학년)

남고, 여고 왜 나누어져야만 하나

양성평등 시대, 남녀공학보다 나누는 것을 더 선호하는 학생들?

옛말에 '남여칠세부동석'이란 말이 있다. 유교의 옛 가르침에서 일곱 살만 되면 남녀가 한자리에 같이 앉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남녀를 엄격하게 구별하여야 함을 이르는 말이다. 우리나라가 유교사상이 강해서일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게 되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남학생과 여학생은 분리된다.

학교를 다니다 보면 한 번씩 '왜 남고, 여고를 나누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진주에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남녀공학보다 확연하게 남학생과 여학생이 따로 있는 단성학교가 더 많다. 남녀공학은 손에 꼽을 정도로 몇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대체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진주에 있는 학교들은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과거 유교적 문화와 보수적인 성향이 강했던 학교 문화가 그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심했을 때 대부분의 학교가 설립된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각 학교의 전통이 깊다 보니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 또한 이런 분위기는 신설학교에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짐작 된다.

그렇다면 남고와 여고에 다니는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J남고, J여고 학생들 각 100명에게 설문지를 진행한 결과 '나누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77.8%, '그렇지 않다'라고 생

각하는 학생이 22.2%로 조사됐다. 예상 밖으로 남녀공학이 아닌 현재의 성별로 분리된 학교를 더 선호하는 결과였다.

남녀공학에 반대하는 학생들은 '남녀가 같이 있으면 눈치도 보이고 평소엔 남고에서 편하게 할 수 있었던 행동에 제약을 많이 받을 것 같다.' '연애하는 애들도 많고 공부에 집중 못하고 성적이 떨어질 게 뻔하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라는 의견이 나왔고 남녀공학을 지지하는 학생들은 '10대 때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껴야 하는 시기인데 성별로 나누어져 있으면 이성에 대한 이해도 떨어지고 대학교 때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이 다를 것이 없는데 인위적으로 구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 '공학이 당연히 문제점이 더 생기겠지만 그렇다고 막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 등등의 의견으로 갈렸다.

하루가 다르게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과거와 달리 이미 양성평등이 새로운 기준이 되고 강제적이고 폐쇄적인 문화가 아닌 개방적이고 자율적인 학교문화로 발전해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단성학교에서 남녀공학 학교로 전환하는 학교도 있다. 또 반면 남녀공학의 이성교제 문제, 성적하락 등을 문제 삼아 남녀공학을 포기하려는 학교도 나타나고 있어 적지 않은 혼란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이든 변화에는 혼란이 따른다. 대학입시 공부만 보면 남, 여학생을 떼어 놓는 것이 더 유리할지 모른다. 성적만 놓고 보면 이성교제가 일상이 되는 남녀공학은 선택해서는 안 될 교육 방법이 된다. 그러나 남학생과 여학생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구분해서 교육하는 것이 옳바르고 훌륭한 선택일 수는 없다. 남학생과 여학생이 자연스럽게 공부할 수 있고 이성교제를 하면서도 학업도 챙길 수 있도록 하는 것. 함께 있기에 생기는 다양한 사고와 문제들을 단순히 남, 여를 분리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함께 있으면서 시행착오를 통해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고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필통편집국]

창의적 체험 활동, 자발적 자습시간인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창체 활동의 개선이 필요하다

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정규 교과 수업이 아닌 여러 활동을 하는 시간을 편성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성폭력 예방 교육, 학교 폭력 예방 교육 등 영상으로 수업을 대체하고 감상문을 적어 제출하는 등의 지루하고 따분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교육활동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 비는 시간마다 외부 강사를 초청하거나 차별화 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을 할 수밖에 없고 강의의 질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된다. 당연한 듯 동영상 시청과 인쇄물을 내주는 것이 교육의 전부 일 때도 있다. 강의의 내용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치며 이미 반복해서 배운 것들이거나 늘 비슷한 내용의 자료들이 대부분이다. 학생들이 흥미를 가진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정도다.

그저 멍하니 시간을 보내거나 몇몇 학생들은 교과공부를 보충하는 시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J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씨는 "사실 거의 떠돌고 놀다가 생기부 때문에 감상문을 진로와 연관 지어 억지로 적어 낸다." "영상은 전혀 1도 도움이 안된다." 고 말했으며 S고등학교에 재학중인 B씨는 "대부분 자습하고 선생님들은 대부분 회의하러 가서서 노는 친구들이 훨씬 많아요."라며 창의적 체험 활동은 학생들에게 그저 노는 시간, 떠드는 시간 일 뿐이라고 얘기했다.

무엇이 문제일까? 학생들의 잘못이 아니다. 교과부에 따르면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개발·신장하고, 자율적인 생활 자세와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 시민

으로서 갖추어야 할 공동체 의식과 다양하고 수준 높은 자질 함양을 지향하는 교육과정이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현재 학교현장의 모습은 과연 이러한 도입취지에 알맞은 풍경일까?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는 커리큘럼에 따라 운영되는 전문적이고 질 높은 교육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부족한 교과를 보충하는 시간은 더더욱 아니다. 학교에서 늘상 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라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소통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고민한다면 같은 주제라도 학생들이 느끼는 차이는 분명히 클 것이다. 시간표에만 있는 유령같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아닌 진정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하루 빨리 잘못된 창의적 체험 활동시간이

[필통편집국]

자치	적응	행사	특색
19	학교폭력예방교육(17월~5월)	계몽식(18월~1시20)	특색:특색활동(순수-순수수업시간)
35			2학년, 3학년, 4학년(22월~1월~1월)
2	학교폭력예방교육(20월~1월~1월)		특색:특색활동(순수-순수수업시간)
7	학교폭력예방교육(1월~5월)		특색:특색활동(순수-순수수업시간)
13	성폭력, 성매매방지교육(12월~1월~1월)		특색:특색활동(순수-순수수업시간)
23			
30			나사시립고교(20월~1월~1월)
7			특색:특색활동(순수-순수수업시간)
14	학교폭력예방교육(10월~1월~1월)		장문홍선생님교육(12월~5월~1월)

제대로 제 모습을 갖추었으면 좋겠다. 학생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시간이 되어 학생들이 자기개발은 물론 진로를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

교과서는 거들 뿐 공부는 부교재로?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낭비성 부교재 학생 부담 크다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한다. 공부를 하려면 교과서가 필요하다. 하지만 학교에선 이 교과서뿐만 아니라 부교재를 필요로 하는 학교가 거의 대부분이다.

새학기가 되면, 서점에는 학생들이 바글거린다. "뭐 사러 오셨어요?" 하고 물어보면 대답은 한결같다. "부교재요." 또는 "보충교재요." 그래서인지 서점 한 칸에는 각 학교마다의 부교재/보충교재 목록표와 함께 해당되는 책들이 줄줄이 쌓여있다. 부교재/보충교재는 학교에서 교과서 이외로 사용하는 문제집으로, 대부분의 학교들이 보충시간(8.9교시)에 사용하거나 교과서를 대신하여 수업하는 교재이다.

그런데 학생들 사이에서 부교재 때문에 곤란한 상황을 겪거나 의도하지 않게 경제적 피해

를 호소하는 사례들이 생긴다. 가장 먼저 부교재를 구매하는데 큰 불편함 있다고 한다. 교과서와 달리 부교재는 개인구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학생들이 구매를 하면 서점에 재고가 부족해 구입을 못하는 상황도 생긴다. 책을 주문하고 학생들이 기다리는 기간에 선생님이 부교재로 수업을 진행하면 교재가 없어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한 학생들이 발생하게 된다.

S여고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책을 구입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다.' '빨리 부교재를 준비하지 못하게 되어 선생님께 혼을 내셨는데 조금 억울했다.' '교과서뿐만 아니라 부교재도 시험 범위에 포함되니 시험공부 양도 많아져서 힘들다.' '한두 과목도 아니고 부교재 구입에 많은 돈이 들어가니 많이 부담스럽다.' 등등의 반응이었

다.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부교재들이 가격이 비싸고 구입비용이 부담이 된다는 하소연이 적지 않았다. 학교에서 교과서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한 문제집은 부교재로써 어느 정도 이해 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느끼는 비용에 대한 부담과 그 실용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해결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늘어난 가는 부교재와 보충교재 구입은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부담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교과서와 별도로 부교재나 문제집이 필수가 된 현실이 올바른 우리 교육현장의 모습인지 학교와 교육당국은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많은 부교재 없이는 정상적인 교과과정이 불가능하다면 그것 역시 큰 문제이니 말이다.



몇 권이 되더라도 부교재가 정해지면 학생들은 구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누구나 인정할 만한 꼭 필요한 교재라면 학생들을 위해서도 준비되어야 한다. 그것에 불만이 있을 학생은 없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남발하거나 실제로 사용한다고 볼 수 없는 낭비성 부교재는 학교나 선생님들이 좀 더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많은 학생들의 목소리다.

[필통편집국]

클릭 몇 번으로 50만원을 벌 수 있다

무료로 정품 '파워포인트'와 'windows 10'을 사용하는 법

학교에서 발표 수행평가를 자주 한다. 내신 성적에 반영되는 수행평가다. e-나라지표에 따르면 2019년 대한민국 컴퓨터 보유율은 약 70%다. 이 중 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 대부분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인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컴퓨터가 없는 가정은 더욱 줄었다.

학교 수행평가의 단골로 나오는 발표 수행평가는 보조자료가 있으면 더 수준이 높아진다. 보통 PPT를 보조자료로 많이 준비하는데 PPT를 만드려면 소프트웨어인 '파워포인트'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유료프로그램이라 구입하려면 약 17만 원 상당의 돈을 지불해야 한다. 수행평가 발표를 더 잘하기 위해 17만 원을 써야 한다는 말이 된다. 돈 때문에 발표준비에 차별 아닌 차별이 발생하는 꼴이다.

또한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macOS나 Windows 같은 운영 체제가 필요하다. 이 또한 유료다. Windows 10 Education의 바로 하위 에디션인 Windows 10 Pro의 가격도 무려 324,600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17만 원을 지불해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고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PPT를 만든다. 그럼 문제가 없는 걸까? 학생들은 저작권에 대해서 배운다. 학교에서는 저작권을 지켜야하고 불법 복제 음원 소프트웨어도 사용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학생들이 정작 수행평가를 준비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하도록 방치하거나 유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다.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단순히 프로그램 회사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 컴퓨터가 해킹당하거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피해

를 입기도 하기 때문에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런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

몇 년 전부터 전국 시·도 교육청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제휴해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코드랑 학번, 이름을 입력하면 아이디를 만들어서 최대 5대의 컴퓨터나 노트북에 정품 오피스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 학생들은 모르고 있다.

무료로 정품 오피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경남남도교육청 사이트의 <http://sw-ms.gne.go.kr/> 로 접속해 Office 365 클라우드 서비스 가입시스템 계정을 만들면 된다. 계정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인증 코드가 필요한데, 학교에게 오피스 365 회원 가입을 위한 학교 인



증 코드를 문의하면 알려 준다.

179,000원 + 324,600원 무려 503,600원이다. 클릭 몇 번으로 50만 원을 버는 방법이다.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를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손상된 디스크 또는 결함 있는 소프트웨어에 노출시킨다. 컴퓨터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는 이제 그만하자.

좋은 정책이다. 분명 나라의 예산이 많이 들어갔을 것이다. 각 가정의 모든 학생들이 쓰는 불법 프로그램을 걷어내고 정품 윈도우와 파워포인트로 이제 당당히 수행평가 준비를 했으면 한다.

[필통편집국]

저희도 비데 쓰고 싶어요!

'교사용 화장실 사용금지' 보다 학생 화장실에도 비데 설치를...

학생들은 오랜 시간 학교에서 시간을 보낸다. 많은 인원이 단체생활을 하는 학교. '교육'이라는 큰 목표아래 학교의 모든 시설물과 프로그램은 최적화 되어 있다. 교실도 중요하고 도서관, 급식실, 과학실, 어학실, 다목적실, 보건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시설이 없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곳이 하나 더 있다. 바로 화장실이다.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곳이지만 또 한 편으로 사람은 누구나 배설욕이 존재한다. 그것은 교사와 학생이 다르지 않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에는 교사와 학생 화장실이 따로 존재한다. 왜일까?

교사용 화장실은 일반 화장실의 옆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런데 교사용 화장실을 학생들이 사용을 해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 학생들은 왜 교사용 화장실을 사용하는 걸까? 학생들이 '짧은 쉬는 시간에 가까운 화장실이 더 편해서..' '교

사용 화장실에는 늘 화장지가 있으니까..' 등의 이유를 말한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따로 있다. 교사용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보다 시설이 훨씬 쾌적하고 좋다는 것이다. 교사용 화장실 대부분은 비데가 존재한다. 그러나 일반 학생 화장실에는 비데가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추운 겨울이면 학생들은 교사용 화장실을 사용하고 싶은 욕구가 높아진다고 한다.

그러나 학생들의 교사용 화장실 사용은 금지되어 있다. 학생들의 무분별한 교사용 화장실 이용을 분명 문제가 있다. 교사들이 수업을 준비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보기 위한 처우와 배려가 필요하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일반 화장실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짧은 쉬는 시간, 수업 준비, 사생활 등 교사들의 불편함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어야 한다.

진주시 관내 고등학교 중 교사용 화장실은 경해여고, 삼현여고, 진주중앙고, 명신고, 진양

고 등 여고 남고 공학에 상관없이 존재했다.

J고등학교 K선생님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기능적인 면에서는 굳이 교사용 화장실을 뒤편 할 이유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사와 학생 사이에 어느 정도의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의 거리를 둔다는 것이 분명 필요합니다. 화장실도 그런측 면에서 이해할 수 있고 교사용 화장실은 여러측면에서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 했듯이, 선생님과 학생들은 분명 차이가 있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들의 화장실 공간을 분리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 그래서 교사용 화장실이 따로 설치되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느끼는 차별이 존재하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바로 화장실의 시설과 환경 차이다.

학생 화장실에도 비데를 설치해주고, 화장지



배급에 더 신경을 쓴다면 교사용 화장실에 대한 불만도 사라질 것이다. 교사용 화장실 사용 금지 풋발을 붙이고 적발된 학생을 처벌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을 누구나 인정할 만큼의 시설로 만들어주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우리나라 공중화장실의 쾌적하고 훌륭한 시설에 놀란 적이 있을 것이다. 학교 화장실이 그보다 못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함께 생활하는 학교에서 교사들과 학생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기를 바란다.

[필통편집국]

재시험, 왜 같은 시험을 왜 두 번이나...

학생 개인의 실수로 재시험이 결정되는 것이 공정한가?

학교를 다니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 중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단연코 시험이야 아닐까? 우리는 시험을 통해 나타내진 자신을 바로 잡을 수 있고 자신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 자신을 반성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험으로 진로가 결정되기에 학생들에게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고등학생은 한 학기에 4번 시험을 친다. 2번은 내신에 포함되는 시험이고, 2번은 수능을 준비하는 모의고사 시험이다. 그런데 학생들은 내신시험을 칠 때면 항상 곤욕을 치른다. 시험지의 오타는 기본이고 문제 자체가 잘못 나오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재시험을 치르느 경우도 있다.

학생들은 시험을 잘 치기 위해 늘 준비한다. 또 학생들 간 차이는 있지만 이만저만 스트레스를 적잖이 받는다. 교과서, 부교재, 보충학습 등으로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보낸다. 안타깝지만 이 모든 것이 오직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렇게 노력해서 준비한 시험을 어렵사리 치렀는데 또 재시험을 봐야 한다면 어떨겠는가? 정

말 당황스럽지 않을까? 당장 자신이 받을 점수에도 직접적 영향이 있고 내신 평가에도 혼란이 오게 된다. 실제 진주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재시험을 친 곳들이 여럿 있다.

A고등학교는 2, 3학년 모두 재시험을 치렀다. 그런데 해당 시험의 성적을 평가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진 않았다. 첫 시험 점수와 재시험 점수 중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해 주었다. 이렇게 되면 평가의 정확성이나 공정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재시험을 치게 된 이유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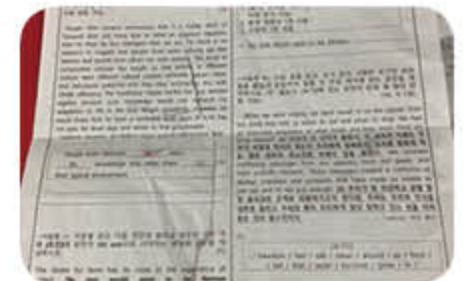
한 학생이 시험지를 받았을 때 선생님이 시험지 면수를 확인하라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하지 않았다. 시험을 치른 뒤 이 학생은 뒤늦게 자신의 시험지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이의제기를 한 것이었다. 결국 이 문제로 2학년 전체가 시험을 다시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한 학생의 실수로 전체 학생 모두가 재시험

을 치러야 하는 것이 옳은 결정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학교측이나 교사의 실수, 시험지 자체의 문제 등으로 재시험이 진행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학생 개인의 실수로 재시험이 결정된다면 그것이 공정한가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 학생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 다른 B, C고등학교에서도 재시험이 있었는데 두 학교는 시험 문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고 출제 교사의 잘못으로 재시험을 치르게 된 경우다. 이런 재시험은 학생들 입장에선 어쩔 도리 없이 받아 들여야 하지만 이 역시도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B, C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원래 시험에서 답을 맞췄던 학생이 재시험에선 틀리는 경우가 있게 된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발생한다. 똑같이 다시 시험을 치른다 해도 두 시험의 성적이 다를 수도 있다.

결국 재시험은 학생들에게 2번 시험을 치러야 하는 고충은 물론 시험결과에 있어서도 피



해를 보게 되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 치열한 입시경쟁에 힘들어 하는 학생들에게 내신 시험의 한 문제 한 문제의 결과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렇듯 재시험은 되도록 있어서는 안 된다. 시험지에 문제가 없도록 학교에서는 철저히 관리하고 교사들은 오타 하나도 놓치지 않는 문제없는 시험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어떤 경우에 재시험을 결정할지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매뉴얼도 필요하다. 재시험 결과를 성적처리 하는 방식 또한 학생들의 입장에서 잘 살펴야 한다. 무엇보다 재시험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학교측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필통편집국]

